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곽윤경
하은솔·오욱찬·신영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옥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05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69-3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2.05>

발|간|사

오늘날 청년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동시에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로도 알려져 있다. 저성장시대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에서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의 일환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또 이듬해 발표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통장사업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하여, 청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와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자산형성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년의 자산 및 부채를 분석하고, 자산을 둘러싼 청년층의 변화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복지욕구를 당사자 관점에서 파악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윤경 부연구위원 주도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피와 살이 되는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해준 원내 오욱찬 연구위원, 신영규 부연구위원, 그리고 하은솔 전문연구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의 각 단계에서 훌륭한 의견을 주신 원내 자문위원인 이태진 선임연구위원과 원외 자문위원인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 수행에 관한 유익한 의견을 준 원외 여러 자문위원분들과 익명의 원내외 평가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전문적인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여러 금융 관련 이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고찰	19
제1절 자산의 이해	21
제2절 선행연구	23
제3절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	28
제3장 자산 및 부채 실태	47
제1절 청년의 자산 실태	51
제2절 청년의 부채 실태	62
제4장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	83
제1절 자산 관련 인식 변화	85
제2절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	9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121
제1절 결론	123
제2절 정책적 함의점	127



참고문헌	135
------------	-----

부록	145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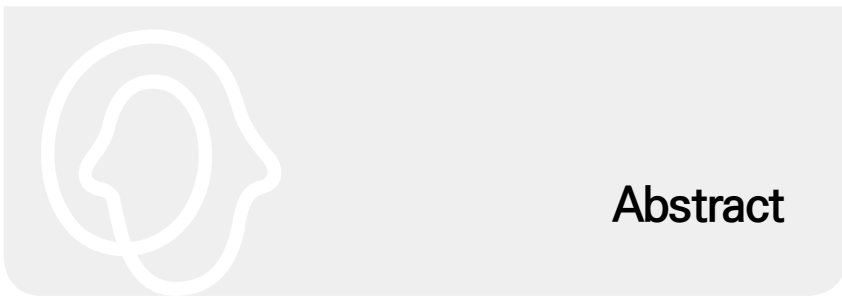
〈표 2-1〉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유형	24
〈표 2-2〉 싱가포르의 일생주기 관점의 자산형성지원정책	28
〈표 2-3〉 싱가포르의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	30
〈표 2-4〉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주요 자산형성 사업	36
〈표 2-5〉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주요 자산형성 사업	39
〈표 2-6〉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	41
〈표 2-7〉 싱가포르와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비교	44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가구주 가구의 표본 특성	50
〈표 3-2〉 자산 분석 지표	52
〈표 3-3〉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	56
〈표 3-4〉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소득계층별)	56
〈표 3-5〉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 규모	59
〈표 3-6〉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자산 규모	60
〈표 3-7〉 부채 분석 지표	64
〈표 3-8〉 유형별 부채 보유 잔액: 전체	70
〈표 3-9〉 유형별 부채 보유 비율	71
〈표 3-10〉 유형별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72
〈표 3-11〉 용도별 부채 보유 잔액: 전체	73
〈표 3-12〉 용도별 부채 보유 비율	73
〈표 3-13〉 용도별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74
〈표 4-1〉 FGI 면접조사 질문지 내용 구성	93
〈표 4-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미혼청년	95
〈표 4-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기혼청년	95
〈표 4-4〉 FGI 주요 결과	116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10
[그림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11
[그림 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15
[그림 1-4] 연구 내용 및 방법	18
[그림 2-1] 일생 동안 제공되는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	31
[그림 3-1] 보유 자산 규모	53
[그림 3-10] 부채상환 중복위험 비율	80
[그림 3-2] 순자산 규모	55
[그림 3-3] 실물자산 비중	58
[그림 3-4] 부채 보유 잔액: 전체	65
[그림 3-5] 부채 보유 비율	67
[그림 3-6]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69
[그림 3-7]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 비율	75
[그림 3-8]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 비율	77
[그림 3-9]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 비율	78
[그림 4-1] 주요 키워드(주식, 예금, 적금, 코인) 검색 빈도	85
[그림 4-2] '주식'과 '청년'에 관한 월간 기사 숫자	86
[그림 4-3] 지역별 주요 키워드(주식, 예금, 적금, 코인) 검색 분포	87
[그림 4-4] '주식'과 '청년' 관련 워드클라우드	88
[그림 4-5] '적금 또는 예금'과 '청년'에 관한 월간 기사 숫자	89
[그림 4-6] '적금 또는 예금'과 '청년'에 관한 워드클라우드	90
[그림 4-7] 면접대상자 표집	92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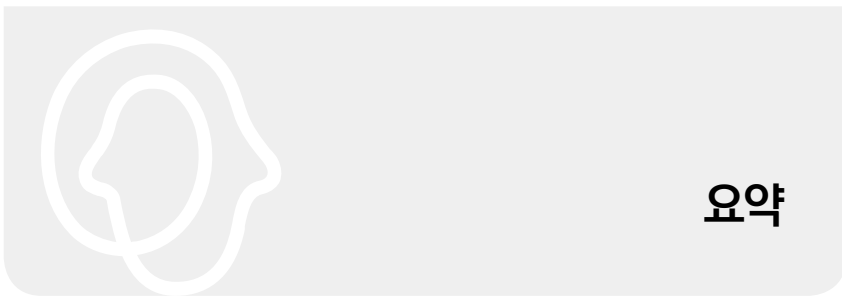
The Current Status of Assets and Responses of Young Adults in South Korea

Project Head: Kwak, YoonKy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young adults' assets and debts, to identify changing attitudes of them towards asset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First of all, this study delves into previous studies on assets and reviews Singapore and domestic cases.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we analyze young adults' assets and debts from 2012 to 2021, specifically focusing on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s aged 19 to 39 across the nation. Then, FGI interviews are carried out with those aged 19 to 39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to find out how they perceive assets and debts, how they accumulate the net asset, and what their welfare needs are in this matter, with the way the current policy can improve. Finally,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mixed method findings, with some limitations and future studies behind.

Keyword : asset, debt, asset-building(asset-based) policy, young adults, youth policy, south Korea

Co-Researchers: Oh, Ukchan · Shin, Young-Kyu · Ha, Eunsol



요약

이 연구는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해서, 청년 자산 및 부채 실태와 자산의 양상 및 복지 욕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년 자산 실태 및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향후 한국 실정에 맞는 청년 자산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장에서는 자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현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복지부, 금융위, 기재부, 고용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자산형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청년 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장애인 이룸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각종 청년통장사업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보유 실태와 부채 보유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표성을 가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9~39세 청년가구주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록 전체 가구의 자산 규모 확대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자녀가구의 자산 규모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1인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규모와 그 변화폭이 뚜렷하여 소득이 많은 가구일

4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수록 자산 규모가 크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다. 결과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실물자산 비중 역시,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가구주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년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높아졌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부채의 경우,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1년 기준으로 73.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은 21.75%,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은 25.78%,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은 16.72%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부채상환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는 4.77%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인터넷에서 ‘청년’, ‘주식’, ‘예·적금’ 등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문기사에서 다뤄졌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코인과 주식 검색량과 관련 기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다음으로, 19~39세의 청년 총 20명을 이행주기별 총 5그룹으로 나눠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현황,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험과 문제점, 그리고 기타 정책 수요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자산 현황은 혼인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미혼 청년 내에서는 경제활동 유무 및 근로형태별에 따른 자산 격차가 있었다. 기혼청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 형성 방식은 근로형태별 차이가 있었다. 즉, 미혼 정규직 청년의 투자 방식은 매우 다양한 반면, 미혼 비정규직 청년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기혼청년은 미혼청년과 달리, 주식 등 리스크가 있는 투자방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적금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향후 자산 목표는 자가 소유의 집 구매 혹은 부동산 등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부채의 경우, 미혼청년과 기혼청년 모두 주택 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기혼청년의 부채는 미혼청년에 비해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였다. 넷째, 대부분은 금융자산 투자 경험 이 있었다. 미혼 정규직 청년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었다. 기혼청년은 사회생활 시작 시점부터 결혼 초까지 활발히 하다가, 이후에는 점차 그 비중을 줄이고 있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다수는 수혜 경험도 있었으며, 여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 외 기타 청년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점으로는 현행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주택구입특화 장기 매칭 청년통장, 재무건강바우처사업, 자산형성 관련 사례관리 강화, 금융교육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 자산, 부채, 자산형성지원정책, 청년, 청년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Galland(1984, 1991)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가거나(직업적 이행), 원가족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살거나(주거지 이행)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가구 이행) 등의 이행해야 하는 과업을 지닌 시기를 청년기로 보았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이들의 생애 발달과업은 매우 단선적이었지만, 현대, 즉 탈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중첩되며, 이행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 과업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등, 점차 그 양상이 매우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변금선, 2020). 이에 따라 청년의 자립 연령은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이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Baacke, 1999).

현시대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채, 주거 등 삶의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김문길 외, 2017). 우선, 취업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주거지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조성호 외, 2017).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1-1]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¹⁾ 추이를 보여주는데, 15~29세 청년들의 체감고통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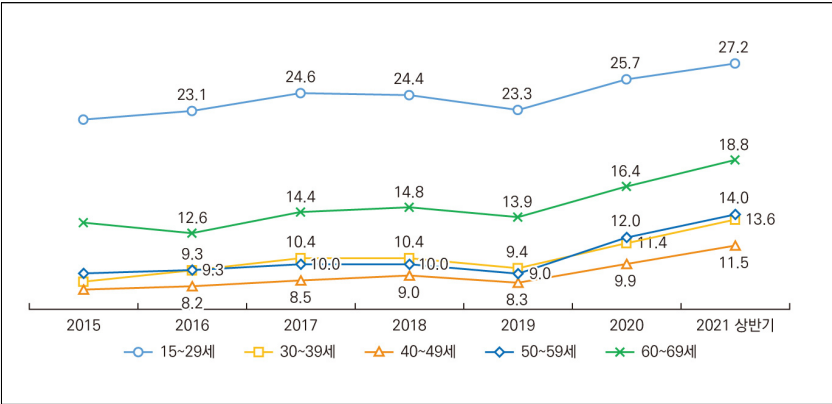
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계산함(김난도 외, 2022, p.215).

10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러한 상황은 2020년 초부터 2021년 1월까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그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 수의 증가는, 이들의 일자리 질 또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근식, 2021, p.107).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자연스레 관련 전문 기술을 숙달할 기회를 상실하여, 중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축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오호영, 2017).

[그림 1-1]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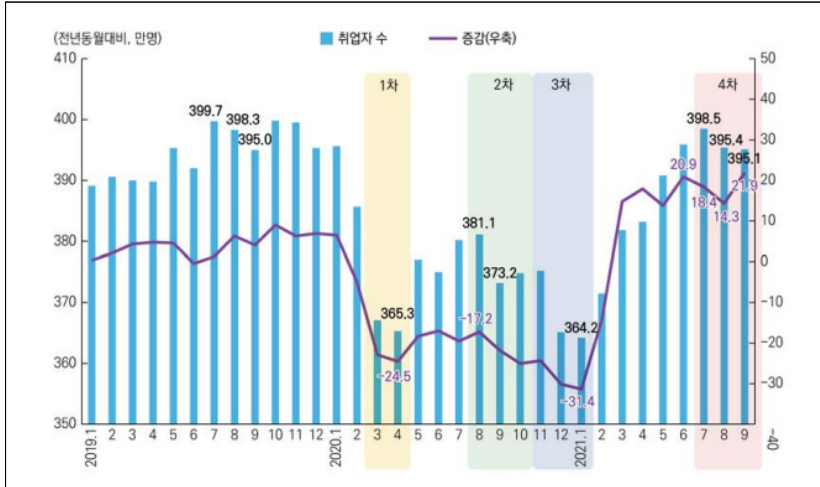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난도 외. (2022). 트렌드 코리아 2023 -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서울: 미래의 창, p.215.

[그림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유근식, (2021).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 p. 105.

다음으로, 청년들은 학자금, 생활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종아, 한창근, 2015). 2021년 발간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8~29세 청년들은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30~34세 청년은 주거비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다(김기현, 배정희, 2021).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다수였고, 이들의 대출 규모는 약 2조 8,802억 원이었다(이용우, 2022.02.07.).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조 2,406억 원이었다(이용우, 2022.02.07.).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에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청년이 취업을 하더라도,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150~200만 원 미만(36.6%), 200~300만 원 미만(28.4%)이기 때문에(통계청, 2022.07.19.), 이들의 학자금 대출 상황은 쉽지 않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청년 집단 내 자산 격차 혹은 불평등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2030세대의 상위 20%의 자산과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35배에 달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022.05.16.). 구체적으로는, 자산 하위 20% 집단의 평균 자산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12.6% 증가한 약 311만 원인 데 반해, 상위 20%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12.8% 증가한 약 1억 1,141만 원이었다(하지만, 2022.05.16.).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불평등 및 사회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2020). 그리고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향후 더욱 고착화되어, 본인 세대 내에서 그리고 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사회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연 외, 2020).

주거 또한 청년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청년의 자가 보유율은 일반 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청년의 자가 보유율은 17.3% 수준이고, 일반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60.6%로 나타났다(김강산, 2021, p.2). 이처럼 청년의 자가 보유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낮다 보니, 청년 다수는 전월세를 통해 거처를 마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년 기준, 20대 가구주의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라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58.6%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a, p.18).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74.8%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일반가구는 63.9%만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강산, 2021, p.5).

이러한 암담한 현실은 청년세대가 직장에서 얻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고 증식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기존의 예·적금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2021년에 시행된 ‘2021년 한-아세안 청년 상호 인식도 조사’²⁾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관심사는 돈·재테크(58.2%)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취업·창업 및 진로(41.3%), 건강·운동(38.2%) 등의 순이었다(박희중, 2022.01.25). 반면에 아세안 지역의 현지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 모두를 포함한 아세안 청년들은 취업·창업 및 진로(현지 67.2%, 주한 69.2%), 학업과 교육(현지 41.8%, 주한 62.2%), 건강·운동(현지 31.0%, 주한 25.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박희중, 2022.01.25.). 이러한 큰 관심은 실제로 금융자산 관련 상품의 가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국내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신규 종목을 매수한 20대는 85.8%, 30대는 82.7%로, 40대 71.1%, 50대 이상 65.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 2021). 또한, 2021년 기준, 2030 청년들이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에 청약한 금액은 2억 6,7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뜨거운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채선희, 2022.11.03.).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여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냄에 따라(이동준, 한창근, 2021), 재테크 열풍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비록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다시 고금리 적금 상품, 즉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년들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는 소수점 거래³⁾나 조각 투자⁴⁾ 등

2)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현지 청년 1,800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청년 500명, 한국 청년 1,000명 등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125500091>

3) 비싼 주식을 0.1주 혹은 0.01주 같이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구매하는 것을 지칭함(김난도 외, 2022, p.49).

4) 현물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에서는 상업용 빌딩 같

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김난도 외, 2022).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변동성과 위험성을 동반한 주식, 가상화폐 등에 몰두하는 행태를 경제적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의 투자 참여 여부 그리고 투자한 이들의 손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의 계층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이동준, 한창근,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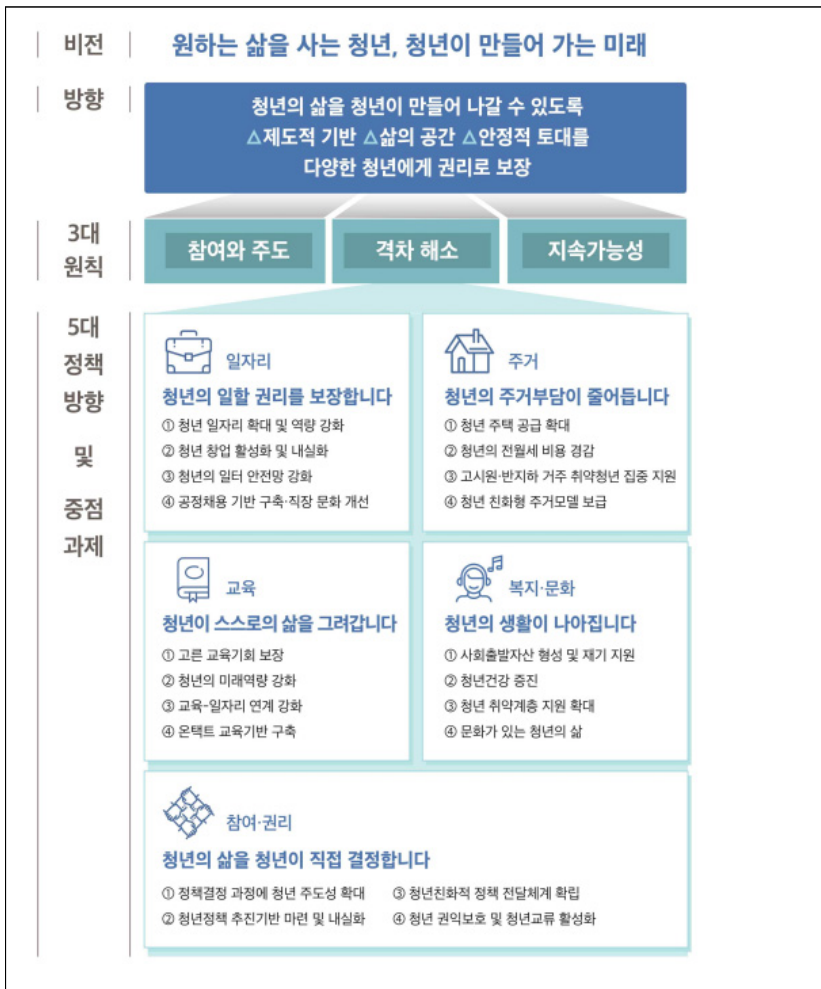
정부는 심화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5년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전경숙, 2021).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특히, 복지·문화 영역에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과 청년 부채 부담 경감 관련 내용을 담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최근에는 청년의 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신속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발표하여, 청년의 빚을 탕감해주고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신용회복위원회, 2022).

최근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청년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해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2022년 현재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증시 및 코인의 폭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면, 청년의 자산은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 이미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은 부동산에 공동 투자해 소유권을 다른 투자자와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배당받으며, 부동산 매각 시, 차익을 나눠 받기도 한다(김난도 외, 2022, pp.49-50).

다. 이는 곧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림 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 에서 2020.06.06. 인출.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하여, 청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와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자산형성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의 자산 및 부채를 분석하고, 자산을 둘러싼 청년층의 변화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복지욕구를 당사자 관점에서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한국 실정에 맞는 청년 자산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정과제 수행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청년 자산형성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은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고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종합 정리하였다. 국내의 자산형성지원제

도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조망하였다. 제3장은 청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19~39세 청년가구주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4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총 5그룹 20명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5장은 여태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 고찰, 각종 정책 검토, 혼합 연구(mixed methods)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자산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외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동향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심층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구성된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39세의 청년가구주인 청년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산과 부채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인식하는 자산의 의미와 자산형성 행태에 대해 당사자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18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그림 1-4] 연구 내용 및 방법

장 구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고찰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문헌조사
제3장 자산 및 부채 실태	· 청년의 자산 실태 · 청년의 부채 실태	실증분석
제4장 자산의 양상 및 복지육구	· 자산 관련 인식 변화 ·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 욕구	FGI 심층면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 결론 · 정책적 함의점	

자료: 필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고찰

제1절 자산의 이해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제1절 자산의 이해

자산은 일반적으로 ‘무형 및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로 정의되며, 소득을 통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석희정, 원도연, 이효선, 박성진, 2021, p.29). 자산은 소비주의적 관점, 사회 계층적 관점, 그리고 사회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 및 설명해 볼 수 있다. 소비주의적 관점은, 일정 소득을 소비하고 남은 돈이 곧 저축 또는 자산이라는 입장을 취한다(조규형, 강소랑, 한창근, 강시온, 2019, p.12). 일생주기설이 대표적인데,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중년 시기에는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형성된 자산을 사용한다는 관점이 소비주의적 관점이다(Modigliani, 1986; 조규형 외, 2019). 사회 계층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은 부(자산), 인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Han, Grinstein-Weiss and Sherraden, 2009, p.224).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인 부는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에게 일정 지위를 물려주는 수단이다(Han, Grinstein-Weiss and Sherraden, 2009, p.224). 그렇기에 부의 불평등이 세대 간에 지속되는 것은 현 사회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Han et al., 2009, p.224). 따라서 자산 수준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준다(조규형 외, 2019, p.13). 즉, 자산은 더 안정적 수단으로 사회적 지위 및 계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Oliver and Shapiro, 1990). 마지막으로, 사회투자 관점에서는 저축은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요인이자 결국에는 사회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Han et al., 2009). 사회투자적

책의 한 유형으로서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은 인적 자본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다(조규형 외, 2019).

한편, 소득과 자산은 그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herraden, 2015). 소득은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고, 자산은 개인이나 가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전병유, 정준호, 2014). 자산은 가계의 부의 자산을 의미하는 반면, 소득은 가정 내 자원의 흐름,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및 생활수준과 관련된 개념으로, 가정 내 자원의 흐름을 의미한다(Sherraden, 2015, p.5). 그렇기에 Sherraden(1991)은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While income feeds people’s stomachs, assets change their heads)’라고 주장하였다.

자산의 유형은 크게 유형 자산(tangible asset)과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속하는 유형 자산은 법적으로 보유 및 소유가 가능하며, 저축, 채권과 주식 및 증권, 부동산, 공구·기구 등을 포함한다(Sherraden, 2015, pp.101-102). 후자인 무형 자산은 앞선 유형 자산에 비해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통계청, 2022b). 예를 들어, 문화적 자본, 인적 자본, 신용, 비공식적 사회적 자본, 공식적 사회적 자본, 정치적 자본 등을 포함한다(Sherraden, 2015, pp.102-104). 이 연구에서는 유형 자산 특히, 경제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럼 청년에게 자산은 왜 중요한 것일까? 청년들은 저축을 통해 금전적인 자산 축적과 더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Friedline, 2014, p.203). 예를 들어, 저축계좌와 대학 졸업을 연계한

다면, 청년의 인적 자본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Friedline, 2014, p.203). 또한, 실업 시 혹은 취업 준비시기에, 생계를 유지하게 돕고, 저축액은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다(Friedline, 2014). 즉,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은 자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저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임금 감소 등의 시기에 형성된 자산을 바탕으로 빈곤층으로의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herraden, 2014).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저축계좌 개설은 곧, 청년과 주류 은행 사이에 접점을 만들 수 있고, 청년이 저축을 비롯한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지식을 쌓고, 스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다(Friedline, 2014). 만약 청년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존 세대와의 단절, 양극화,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자산형성을 통해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신승근, 2021).

제2절 선행연구

국내외에서는 수행된 선행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산형성사업과 관련된 연구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금융 자산 그리고 비금융자산의 소유와 형성을 촉진해주는 제도로,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저축으로 상정되는 물적 자산을 형성시켜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주고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서종녀, 2016, p.229).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크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개인발달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잔여적인 성격을 띤다(한창근, 2007).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대만의 가족발달계좌사업(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 TFDA), 캐나다의 Learn \$ave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가 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제도이다. 국가별로 운영 방식 및 지원 대상에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한창근, 2007). 미국의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SEED), 영국의 Child Trust Fund(CTF),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JISA), Saving Gateway, 싱가포르의 Child Development Accounts(CDA)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 2-1〉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유형

구분	IDA 유형	CDA
대상	저소득층	아동
잔여적 대 보편적	잔여적	보편적
주요 특징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장기적으로 빈곤 아동들의 자활 기반을 마련
예시	• 미국 IDA • 영국 Saving Gate • 캐나다 Learn \$ave • 대만 FDA	• 미국 SEED • 영국 CTF, JISA, Saving Gate • 싱가포르 CDA

자료: 한창근. (2007).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440.; 최상미, 조자영. (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 연도 패널구축 연구.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pp.3~4를 바탕으로 작성함.

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다른 강점으로, 자산은 미래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Sherraden, 2015). 또한, 개인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리 및 운용하고, 때로는 결정을 내리며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찾는 등의 금융 지식에 대해 탐구한다(Sherraden, 2015, p.156). 이러한 경험, 즉 추가 자산을 불리기 위한 노력은, 곧 인적 자본의 발전을 돕는다(Sherraden, 2015, p.156). 그리고 자산은 개인의 정치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실제로 부를 축적한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raden, 2015, p.165).

한국은 2007년 디딤씨앗통장, 즉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다(최상미·조자영, 2021, p.3). 이에 따라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통장사업에 대한 소개, 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최현수(2013)는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가입 시점부터 탈수급 시점까지 근로 현황, 자산 실태, 소비 및 저축 인식과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서종녀(2016, 2019)는 서울시의 청년통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이러한 사업 참여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동호(2021)는 광주시에서 시행한 청년13(일 + 삶)통장의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상미, 김아래미, 박성준, 유송이(2018)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패널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혹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 즉 잔

여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 포용적(inclusive)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Han, 2013).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크게 보편성(universal), 누진성(progressive), 인생주기(life-long), 적절성(adequate)의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Han, 2013). 보편성이란, 인종, 성, 소득, 연령 등과 상관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Han, 2013). 누진성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저축, 면세, 세금 환불 등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Han, 2013). 인생주기는 한 개인의 어린 나이부터 빨리 저축을 시작하면, 교육을 비롯한 아동 개인의 발전에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Han, 2013). 또한, 자산형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일생주기 관점에서 자산은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Han, 2013). 마지막으로 적절성은 주택 구입, 사업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이다(Han, 2013). 그렇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저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Han, 2013).

둘째, 청년의 자산 및 부채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정해식 외, 2020), 1인가구 유형 중 하나로 청년가구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와 청년층 내 자산, 소득 격차 등을 살펴본 연구(이주미, 김태완, 2022), 청년들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그리고 청년 부채 현실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박수민, 2022). 부채상환을 완료한 청년은 대체로 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월평균 소득과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김태은, 양세정, 2018).

부채가 많은 청년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은 그리 길게 소요되지 않았다(이용호, 이원익, 2020). 즉, 부채 부담 자체가 청년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이용호, 이원익, 2020).

마지막으로, 청년의 자산 관련 인식과 경험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살펴보고(김승연 외, 2020),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과 그 인과 구조를 탐색하고(이동준, 맹성준, 강준혁,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과 행태를 분석하였다(이동준, 한창근, 2021).

이를 종합해 보면, 기존 연구는 주로 자산형성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등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도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청년의 자산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는 있지만, 이는 특정 연도나 특정 가구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체 청년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이를 형성하는 행태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제3절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

1.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제도

싱가포르는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Sherraden, 2018). 이 제도는 은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노동소득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각출하여 저축하도록 한다(최현수 외, 2017, p.52).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자조(self-reliance)를 운영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Sherraden, 2018, p.4). 이후, 꾸준한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표 2-2>와 같이 변모하였다.

<표 2-2> 싱가포르의 일생주기 관점의 자산형성지원정책

구분	아동청소년	청년 · 중년	노년
주요 인생과업	아동 보호 및 보육 건강 교육 청년기로의 준비	고용 자녀 양육 부모 봉양 은퇴자금 마련	건강 경제적 보장 손자녀와의 관계
자산정책	CDA Edusave PSEA	CPF HDB (Housing Development Board)	CPF HDB

자료: 한창근. (2022.09.01.).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p. 10.

현 제도는 주거, 의료, 교육 및 기타 여러 분야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주요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이 주택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Sherraden, 2018). 즉,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자금으로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Sherraden, 2018).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 고용주가 17% 그리고 사용자가 20%를 기여하도

록 기여율을 설정하였다. 자녀가 독립하고 난 후, 노부부의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고, 소규모의 주택을 재구매하는 것을 돕는 등, 정책적으로 주택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지원한다(최현수 외, 2017, p.55). 이는 시민들의 주택 소유를 사회 보호 및 경제 개발의 기반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herraden, 2018). 그뿐만 아니라 최저저축액 제도(minimum sum)를 두어, 2022년 기준 55세 이상 싱가포르 시민이 최소 S\$192,000⁵⁾을 계좌에 예치해 두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Central Provident Fund Board, 2022). 만약 계좌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녀 등 가족이 채워주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표 2-3>과 같다. 먼저, 아동발달지원 계좌(CDA)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의 건강과 조기교육의 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계좌는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Loke and Sherraden, 2019). 2001년부터 시행된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⁶⁾와 같이 제공되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게는 S\$8,000, 셋째아이부터는 S\$10,000이 현금으로 제공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남은 잔액은 대학교육계좌(PESA)로 이전된다(Loke and Sherraden, 2019). 해당 계좌의 남은 잔액은 대학교육계좌(PESA)로 이전된다.

한편, Edusave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때 아동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계좌이다. 사실 Edusave는 개인저축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학생 이름의 통장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최현수 외, 2017). 이 통장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등록비나 학교나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에만 사용할 수

5) 2022년 9월 4일 기준, 한화로 약 186,718,080원임(1싱가포르 달러=972.49원).

6)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abybonus.msf.gov.sg/Pages/Home.aspx> 참고 바람.

있다. Edusave의 잔액 또한 대학교육계좌(PESA)로 이전된다(Loke and Sherraden, 2019).

대학교육계좌(PESA)는 대학등록금 혹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대학교육계좌(PESA)에 넣은 돈을 등록금으로 사용하고도,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송아영, 2021.06.17.). 또한, 해당 자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로도 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계좌에서 남은 잔액은 30세가 되면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CPF)에 이전된다.

〈표 2-3〉 싱가포르의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

구분	Edusave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PSEA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시작 연도	1993년		2008년
주요 인생과제	6~16세의 학령기 아동	0~6세	7~20세
매칭 비율	-	1:1	1:1
매칭 캡 (matching cap)	연 S\$400	첫째와 둘째 자녀 S\$6,000 셋째와 넷째 자녀 S\$12,000 다섯째 자녀 이상 S\$18,000	
저축 목적	교육 향상	보육비 의료비 조기교육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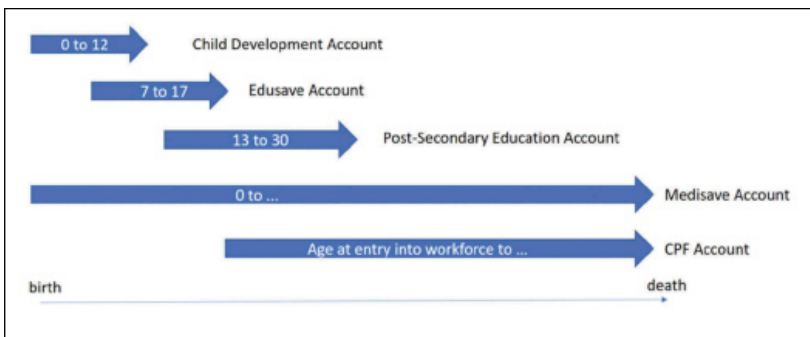
자료: 한창근. (2022.09.01.).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p.11.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의료비 지원금으로 일정 금액이 담긴 메디세이브(Medisave)⁷⁾ 계좌를 2013년부터 출생 등록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7) 원래 메디세이브는 1984년부터 시작된 국가 의료 저축제도로써,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회원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였다.

제공하고 있다(Loke and Sherraden, 2019). 이를 통해, 갓 태어난 아동의 예방접종, 입원, 외래 치료 같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Loke and Sherraden, 2019). 2015년 기준, 출생 아동에게 S\$4,000을 제공하도록 책정한 바 있다(Loke and Sherraden, 2019). 이 금액은 21세 성인이 되면 가입해야 하는 싱가포르 의무 국민건강보험제도인 메디실드 라이프(Medishield Life)에 가입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Loke and Sherraden, 2019, p.10).

[그림 2-1] 일생 동안 제공되는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



자료: Loke and Sherraden. (2019). Building assets from birth: Singapore's polic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p.14.

정리하자면, 싱가포르의 사회정책은 자산형성지원제도로 함축될 수 있다(Loke and Sherraden, 2019).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보편성을 기초로 하여 모든 시민과 그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자동 등록되게 하거나, 자동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강점이 있다. 또 다른 강점으로는 아동 출생부터 노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계좌 간의 이전(portability)이 가능한 연속성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그러나 현재의 비용으로 미래만을 대비하게

하는 것은 즉각적인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자칫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Loke and Sherraden, 2019). 예를 들어, 미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현재 저축하는 것보다, 저소득 아동에게는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욕구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Loke and Sherraden, 2019). 그렇기에 미래와 현재의 욕구를 잘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Loke and Sherraden, 2019). 그리고 영주권자의 자녀, 즉 싱가포르 국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Loke and Sherraden, 2019). 역진성이 높다는 점도 종종 문제점으로 제기된다(Loke and Sherraden, 2019). 현 제도상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저축 금액이 높아 관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저축액이 적다 보니 제도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첫 출발의 격차를 없애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희망저축계좌 I, 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저축계좌 II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2). 전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 지원되고, 이렇게 쌓인 금액은 탈수급 시 전액 지급된다. 후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된다. 다만, 정해진 교육과 사례관리를 모두 이수하고, 수령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을 완료하면 전액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금이 전

액 지급될 때, 정책대상에 따라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이 추가 지급되기도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00%인 만 15~39세 이하인 차상위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2).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 액수의 1~3배를 매칭 적립한다. 납입액은 연 120만 원 제한이 있고, 3년 만기 시, 매칭적립률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가량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5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 상품이다.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본 금리는 5%이지만, 은행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3.03.).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펀드 납입액은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 한도이다. 펀드납입액 중 40%인 24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해 준다. 대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25,000원을 2년간 납입(총 300만 원)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기업은 정부지원 300만 원을 적립해 준다.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

원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⁸⁾ 2년 만기 후 공제금은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수령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 정규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 5년 동안 청년이 720만 원(매월 최소 12만 원), 기업이 1,200만 원(매월 최소 2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총 7회에 걸쳐 1,080만 원 상과보상기금을 적립해 준다(박충렬, 2022). 즉, 5년 근속 시에는 만기 수령금으로 3,000만 원을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중소기업벤처부, 2021). 2023년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다(박충렬, 202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저축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이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우리은행, 2022). 혜택은 연간 납입한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2022). 또

8) 기업규모별 적립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49인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50~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2.8%,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3.3%, 2년 이상~10년 이하라면 3.6%를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2022).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우리은행, 2022).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적금제도이다. 매월 최대 40만 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은행이자 5%와 국가가 지원하는 이자 1%, 즉 총 6%의 이자를 받고, 추가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한다(국방부, 2022).

참고로, 2023년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자만 가능하다(금융위원회, 2022.08.30.). 개인이 매월 40~70만 원 저축 시, 정부는 별도 기여금을 3~6% 추가 지원한다(금융위원회, 2022.08.30.). 다만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 2022.08.30.).

〈표 2-4〉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주요 자신행성 사업

담당 부처	상품명	지원대상		내용		납입 한도	만기 수령금
		소득기준	연령	지원혜택			
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	정해진 교육 및 사채관리 이수 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명하면 전액 지급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 원 (3년 만기)	(3년 후) 720~1,440만 원 + 이자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⁹⁾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5세 이하	- 저축장려금 최대 4%p (1년 2%→2년 4%)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연 600만 원 (2년 만기)	(2년 후) 1,200만 원 + 시중금리+ 저축장려금 36만 원 수준	
금융위, 기재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 원 (3~5년)	(3년 후) 1,800만 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00만 원	

9)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초에 출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일몰됨.

담당 부처	상품명	지원대상		내용		만기 수령금
		소득기준	연령	지원혜택	납입 한도	
고용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¹⁰⁾	중소기업 취업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월 임금 총액 300만 원 이하	만 15~34세 이하 (군필자 만 39세로 한정 ¹¹⁾)	- 정부지원금 600만 원, - 기업지원금 300만 원	월 12.5만 원 (연 150만 원)	1,200만 원 + 이자 (2년 만기)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만 15~34세 이하 (군필자 만 39세까지)	- 청년은 매월 최소 12만 원 이상 저축(총 720만 원), - 기업은 최소 월 20만 원 적립(총 1,200만 원), - 정부는 3년간 총 7회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총 1,080만 원)	최소 월 12만 원	(5년 근속 시) 3,000만 원
국토부	【청년유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만 19세~ 34세 이하	- 금리 연 최대 3.3%,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최소 월 2만 원- 50만 원, 연 납입액 600만 원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 저금】	-	병역의무 이행자 ¹²⁾	- 장병3 : 정부1 비올로 매칭 - 이자소득 비과세 - 6% 이자(5% 은행 이자 + 1% 국가지원 이자)	월 40만 원 (전역 시 만기, 최소 6개월~최대 24개월)	최대 1,000만 원 수령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lId=1548>에서 2022.06.06. 인출; 보건복지부. (2022). 복지- 자립지원 - 자산형성지원,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204&PAGE=4&topTitle=에서 2022.06.06. 인출; 신승근. (2021).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안 모색, 서울: 대한민국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83M0.do>에서 2022.10.24. 인출; 국방부. (2022). 장병내일 준비적금,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2060000에서 2022.06.06. 인출.

1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 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2년 지침 개정, 개정 전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함. 단, 재가입 시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함(고용노동부민원마당, 2022).

11)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함.

12) 병역의무이행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함.

금융위원회의 햇살론유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용도는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생활비를 목적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후자는 학업,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1회 한도는 900만 원이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특정용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원비 및 의료비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대상은 당연히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이어야 한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대출 금리는 3.5%이고,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거치기간은 최대 8년까지로 최대 15년 이내에서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금융감독원, 2022). 해당 대출을 받은 청년은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표 2-5〉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주요 자산형성 사업

담당부처	상품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융위	【햇살론유스】	- 만 19~34세 이하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취업준비생(대학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자	- 대출금리 3.5% - 1인당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 까지 - 최대 15년(거치기간 최대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감독원. (2022a). 서민금융지원 - 햇살론 youth,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702.jsp> 에서 2022.06.06. 인출; 서민금융진흥원. (2022). 서민금융 한눈에 - 생계자금, <https://www.kinfra.or.kr/contentsPage.do?menuCode=01313&menuCategory=00160> 에서 2022.06.06. 인출.

가. 서울시 사례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이 있다. 이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 목돈 마련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여 출발하였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만 18~34세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22).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여, 종전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2022년에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혹은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2).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매칭해 준다(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복지재단, 2022). 그 외 참가자 의무사항으로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적립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50% 이상은 근로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여야 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월 납부 금액은 5만 원, 7만 원, 혹은 1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만 원 납부도 가능하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 매칭을 해주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 매칭이 된다(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복지재단, 2022).

3년 혹은 5년 동안 가입이 가능하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름통장은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사업 참여자가 매달 10, 15 혹은 20만 원 중에서 선택하여 총 3년을 납부하면, 서울시는 매월 15만 원씩 정액 적립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가입기간 동안 최소 의무사항은,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13회 이상 저축을 해야 하고, 적립기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6〉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

구분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장애인 이름통장
시행	15년 3월	09년 3월	18년 7월
가입대상	만 18~34세 이하 근로 청년	만 14세 이하 자녀양육가구	만 15~39세 장애인
소득기준 (신청시)	본인 255만 원 (부양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90%)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목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자녀교육	미래자산형성 자립생활사용
본인저축	10, 15만 원	5, 7, 10, 12만 원 (12만 원은 3자녀 이상만 해당)	10, 15, 20만 원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15만 원
적립기간	2, 3년 선택	3, 5년 선택	3년
수령 금액	(2년 - 10만 원) 총 480만 원 + 이자 (2년 - 15만 원) 총 720만 원 + 이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만 원 기준, 3년) 총 720만 원 + 이자 (10만 원 기준, 5년) 총 1,200만 원 + 이자	(10만 원) 총 900만 원 + 이자 (15만 원) 총 1,080만 원 + 이자

4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구분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장애인 이룸통장
	(3년 - 10만 원) 총 720만 원 + 이자 (3년 - 15만 원) 총 1,080만 원 + 이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0만 원 기준, 3년) 총 540만 원 + 이자 (10만 원 기준, 5년) 총 1,080만 원 + 이자	(20만 원) 총 1,260만 원 + 이자
선발인원	7,000명	300명	1,000명
시행부서	지역돌봄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202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achieveBank.lp> 에서 2022.06.06. 인출; 서울특별시. (2022). 지역사회복지 - 저소득층 자립지원,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02> 에서 2022.10.25. 인출.

나. 소결¹³⁾

국내외에서 추진 및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관련 사업의 운영 방식은 저축에 대한 매칭에만 집중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통장사업에 가입하는 청년들이 간혹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통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부차적으로 여김에 따라 관련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통장 유지 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금융(재무)교육이 일회성이거나, 1:1이 아닌 집체 형식의 상담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가 어렵기도 하다. 진행 주체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종종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사례관리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적 자본 축적만이 저소득층 혹은 모든 시민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열

13) 자문회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쇠가 아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재무관리, 채무조정, 저축 습관 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석희정 외, 2021).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연계 및 협력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해당 사업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석희정 외, 2021).

다음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조건을 둘러싸고도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 현재 자격요건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즉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즉,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인 이들은 가입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기준 혹은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근속기간이 있다. 만약 청년이 회사를 이직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해 중도 탈락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청년은 고용주 혹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더라도, 특히 통장 만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쉽게 회사를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복수혜와 중도탈락(해지)에 관한 문제이다. 서울시 및 기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자산형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사업 기간 내에 다른 시나 도로 전출할 경우, 전출 날짜에 바로 통장사업 가입이 중도해지된다. 특히, 지자체 사업의 경우, 이사로 인한 거주 행정구역의 변경은 중도탈락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이다. 서울시에서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청년통장사업의 중도탈락이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제도 비교

앞에서 정리한 싱가포르와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성을 비교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7〉).

〈표 2-7〉 싱가포르와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목적	•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 • 노후소득보장의 목적	• 청년의 경제적 자립. 즉, 첫 출발의 격차를 없애주는 데 방점이 있음.
대상	• 전 국민	• 청년,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 중심
시행 시기	• 1960년대	• 2007년 (서울시)
운영 원칙	• 개인의 자조(self help) • 일부는 자동 등록됨	• 개인이 직접 신청
담당부처	• 중앙정부 (노동부 등)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등)
특징 1)	• 일생주기별 지원 (출생 - 노년기) • 목적성 지원 (교육, 주택 마련 등) • 보편성 (모든 시민들이 저축계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받음)	• 신청조건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가입자는 금융교육, 사례관리 등이 연계·지원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중복수혜 불가
단점 1)	• 현재의 비용으로 미래를 대비하게 하므로, 즉각적인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자칫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역진성 문제,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자는 가입하기가 어려움. • 저축에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존의 사례관리나 금융교육 측면은 소홀해지는 경우가 발생함.

주: 싱가포르는 〈표 2-1〉를 기준으로, 한국은 〈표 2-4〉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필자 작성.

양국의 제도를 앞에서 언급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4가지 원칙인 보편성(universal), 누진성(progressive), 인생주기(life-long), 적절성(adequate)에 비춰,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싱가포르의 제도

는 보편적인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별적인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모든 시민들이 저축계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통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누진성은 양국 제도의 공통된 특징이다. 한국은 높은 이자율 혹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 역시 정부의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다. 인생주기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부터 노후까지 관여하고, 인생주기별 계좌 간 이전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은 사업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적절성 측면에서는 싱가포르가 다소 높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주택 마련 등 실물자산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개인의 첫 출발 격차를 없애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업 참여자가 통장 만기 시 받는 수령액 규모는 실물자산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자산 및 부채 실태

제1절 청년의 자산 실태

제2절 청년의 부채 실태

제3장 자산 및 부채 실태

이번 장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9~39세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및 부채 실태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을 조사하여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한국은행, 2020.12.17.). 조사단위는 가구이며, 직장·학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들도 가족으로 포함한다(한국은행, 2020.12.17.). 해당 자료는 매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통해 가계금융복지데이터로 제공된다(한국은행, 2020.12.17.).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전체 사례 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의 경우, 35~39세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30~34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유형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다. 반면, 부부가구, 부양책임가구, 자녀가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혼인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15~18% 더 많았다.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가구주 가구의 표본 특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주 성별	남성	82.3	83.3	83.9	82.9	81.5	81.0	81.0	80.7	77.8	74.8
	여성	17.7	16.7	16.1	17.2	18.5	19.0	19.0	19.3	22.2	25.2
가구주 연령	19~29세	16.6	14.6	11.8	13.2	13.7	15.8	15.3	15.0	16.1	19.1
	30~34세	35.3	35.9	38.3	36.5	34.8	32.5	28.8	27.7	27.0	28.1
	35~39세	48.2	49.5	49.9	50.3	51.5	51.7	55.9	57.3	56.9	52.9
가구유형	1인가구	18.6	17.3	15.5	17.2	18.8	22.2	22.1	24.1	27.2	36.6
	부부가구	12.2	12.1	13.5	13.8	14.2	15.4	13.2	11.9	11.6	10.0
	부양책임가구	15.8	15.7	15.1	14.0	12.6	11.0	11.8	12.2	11.3	10.0
	자녀가구(자녀만)	53.4	54.9	55.9	55.0	54.5	51.5	52.9	51.8	49.9	43.3
소득계층	1분위	6.4	7.3	6.2	6.0	6.7	12.1	10.7	8.9	10.2	11.9
	2분위	23.1	22.5	22.7	22.8	23.3	22.6	22.3	23.5	22.2	24.2
	3분위	28.8	28.1	28.1	28.6	28.1	26.9	28.2	28.5	27.7	27.7
	4분위	24.7	24.9	25.4	26.2	25.3	24.1	24.9	25.4	24.9	21.9
	5분위	17.0	17.3	17.6	16.4	16.6	14.3	13.9	13.7	15.0	14.3
지역	수도권	42.3	42.6	41.7	42.7	43.5	43.1	42.0	42.3	40.3	41.2
	비수도권	57.7	57.4	58.3	57.3	56.5	56.9	58.0	57.7	59.8	58.8
전체 사례수		4,239	3,710	3,333	3,236	3,157	3,069	2,861	2,545	2,298	2,24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단위: %, 명)

분석 내용은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보유 실태와 부채 보유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를 비교하고,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비교의 관점에서 다룬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양책임가구, 자녀가구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1인가구는 청년가구주 1인가구를 뜻하고, 부부가구는 청년가구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를, 부양책임가구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사는 청년가구주 가구를, 자녀가구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 또는 한부모가구를 의미한다.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 5분위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제1절 청년의 자산 실태

1. 분석 개요

여기서는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을 분석한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보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자산 및 순자산의 규모를 분석하고,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을 검토한다. 또한, 자산의 구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의 비중을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되므로 실물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자산 비중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분석들은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교를 비롯해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비교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청년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 비율과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규모를 분석한다.

자산 규모는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을 의미하고, 순자산 규모는 가구의 총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기계, 장비, 동·식물, 회원권, 권리금 등 평가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금융자산에는 현금, 저축, 펀드, 저축성·보장성보험, 주식, 채권,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갯돈 등이 포함된다. 소득 대비 자산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활용한다.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분석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021년 실질가치로 전환된 소득과 자산 항목을 활용하였고,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3-2〉 자산 분석 지표

구분		정의
자산 규모	자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2021년 실질가치)
	순자산	가구의 총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산 유형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계, 장비, 동·식물, 회원권, 권리금 등 평가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
	금융자산	현금, 저축, 펀드, 저축성·보장성보험, 주식, 채권,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갯돈 등
소득 및 부동산에 따른 자산 규모	소득 대비 자산 규모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 규모(2021년 실질가치)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의 자산 규모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자산 규모

자료: 필자 작성.

2. 자산 보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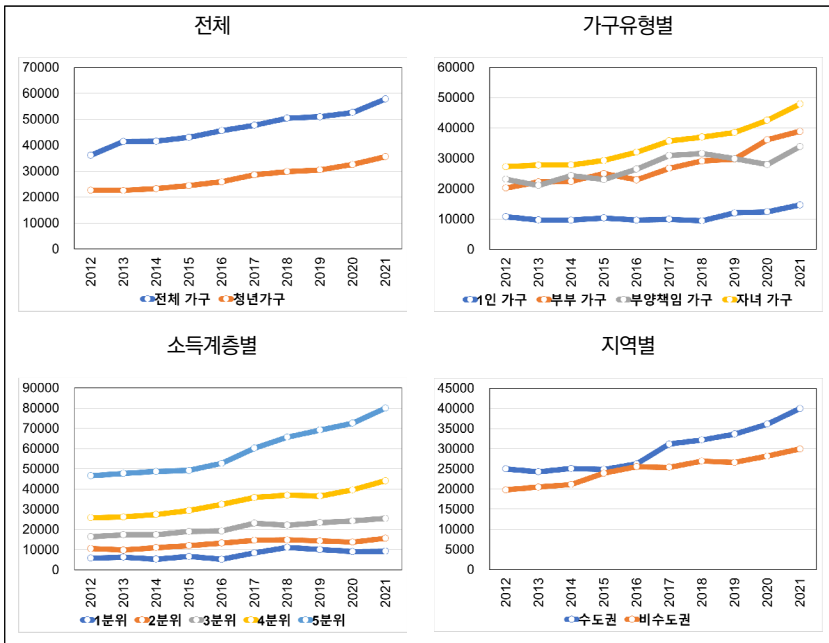
가. 자산 규모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2012년 2억 2,675만 원에서 2021년 3억 5,624만 원으로 약 1.6배 상승하였다.

2013년에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이 2012년보다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그 규모가 전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늘었다.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 차이는 2012년 1억 3,454만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억 2,207만 원으로 벌어졌다.

[그림 3-1] 보유 자산 규모

(단위: 만원/년, 2021년 실질가치)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모든 가구유형의 자산 규모가 2012년보다 2021년에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증가 폭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구의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2012년 2억 7,295만 원에서 2021년에는 4억 7,889만 원을 기록한 반면, 1인가구의 자산은 다른 유형보다 증가폭이 작아 2012년 1억 822만 원에서 2021년 1억 4,649만 원으로 상승했다. 부부가구와 부양책임가구의 자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중간에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가구주의 자산 규모 변화 추이는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2년 4억 6,617만 원을 나타냈던 소득 5분위의 자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8억 81만 원을 기록하여 172%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소득 1분위의 자산 규모는 2018년 1억 1,193만 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2020년까지 하락한 후 2021년에 소폭 증가하여 9,281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2년부터 조금씩 줄어 2016년에는 666만 원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수도권은 3억 9,984만 원, 비수도권은 2억 9,963만 원으로 나타나 1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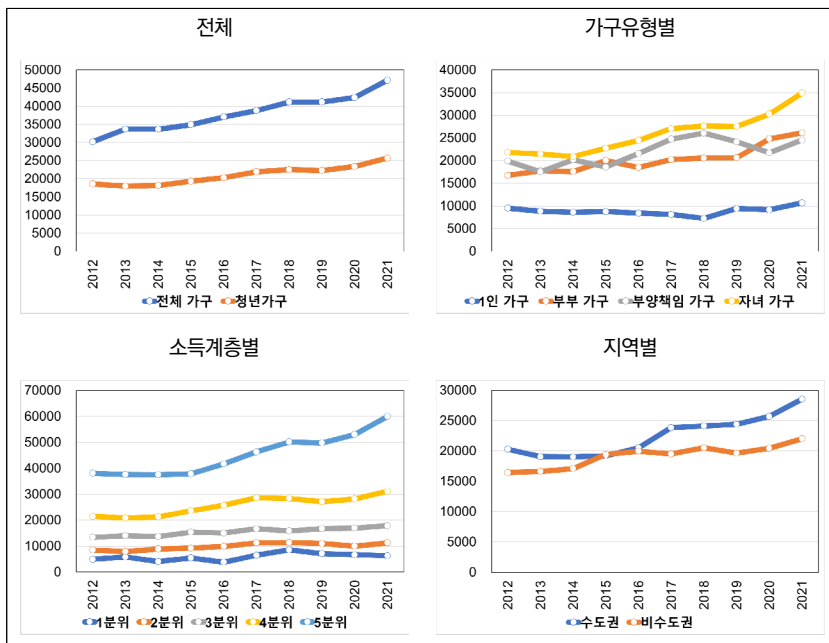
청년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규모 변화 추이는 자산 규모 변화 추이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성은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계층별 자산과 순자산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산, 순자산, 부채의 규모가 모두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가구주 가구와 전체 가구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 가구의 경우 2012~2021년 기간 동안 그 비율이 80.5~8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가구주 가구는 그 비율이 2012년 82%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21년에는 72.1%로 떨어졌다.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2012~2021년 사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가구주 가구가 더 큰 폭의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은 2013년 91.4%였지만 이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67.6%까지 떨어졌다. 소득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그 비율이 소득 1분위 가구보다 낮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소득 1분위 가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1년 소득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은 각각 70.5%와 74.9%로 나타나 소득 1분위 가구보다 높았다.

[그림 3-2] 순자산 규모

(단위: 만원/년, 2021년 실질가치)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3〉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가구	83.5	81.2	81.0	81.1	81.2	81.2	81.6	80.7	80.5	81.6
청년가구주 가구	82.0	79.6	77.8	78.9	78.2	76.7	75.4	73.0	71.7	72.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4〉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소득계층별)

(단위: %)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	84.2	80.5	81.4	83.1	81.7
2013	91.4	80.0	80.2	79.4	78.7
2014	74.8	80.7	78.5	77.6	77.0
2015	81.8	76.9	80.9	80.2	76.8
2016	72.1	74.3	78.0	79.2	79.1
2017	76.4	76.7	72.3	79.9	76.8
2018	76.2	76.1	71.7	76.7	76.4
2019	70.5	76.6	71.4	74.2	72.0
2020	73.3	72.2	70.1	71.0	73.0
2021	67.6	71.8	70.2	70.5	74.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나. 실물자산 비중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고,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56.65%와 42.55%로 그 격차는 14.11%p였다. 이후 전체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청년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오르내림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2021년 두 집단의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63.07%와 44.49%로 나타나 그 격차는

18.58%p로 벌어졌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 가구와 비교할 때 청년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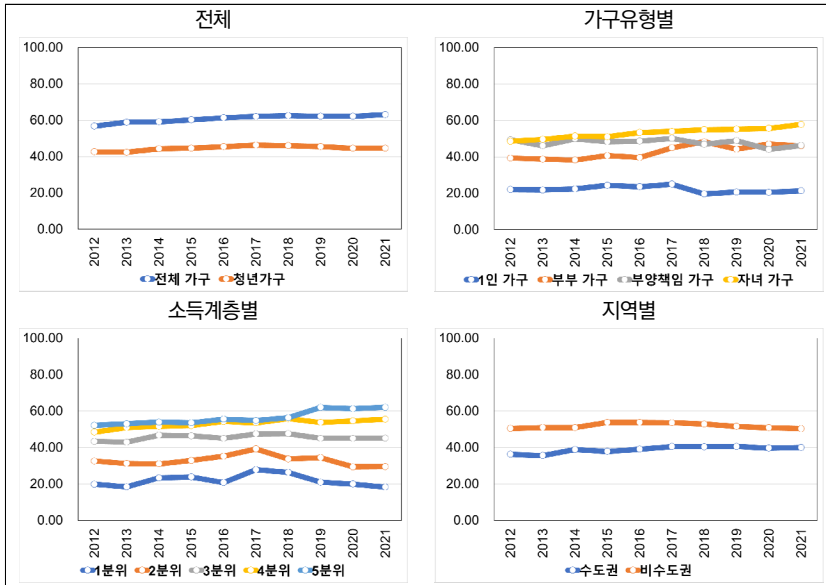
가구유형별 실물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와 자녀가구의 상반된 경향이 뚜렷하다. 1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2012년에 22.03%를 기록한 이후 크게 오르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2년에는 21.33%로 나타나 네 가지 가구유형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녀가구의 경우, 2012년 48.49%였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7.72%까지 올라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 부양책임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이 부부가구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두 가구유형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가구유형별 비교에서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실물자산 비중은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다. 2012~2021년 기간 동안 실물자산 비중은 언제나 소득 5분위 집단이 가장 높고 소득 1분위 집단이 가장 낮았지만, 2017년에는 두 집단의 격차가 26.98%p로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3분위와 4분위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5분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21년에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경향이 명확해졌다. 소득이 많은 가구는 금융자산을 늘리기보다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실물자산 비중이 더 크지만, 최근 들어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물자산 비중은 15.94%p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 비수도권의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그 격차가 10.34%p로 줄어들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실물자산 비중

(단위: %)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 소득 대비 자산 규모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이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 규모의 평균값과 중위값을 산출하였다. 평균값은 연도에 따라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다. 2012년 평균값은 7.72였지만, 2013년에는 9.90으로 크게 상승한 후 2014년에는 5.98로 크게 떨어졌다. 2017년에 다시 큰 증가세를 보이며 8.65를 기록한 후에는 2021년까지 7.5~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 규모의 중위값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2년 5.85였

던 중위값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6.39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6.65로 상승했다. 중위값을 고려하면 청년가구주 가구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약 6배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진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표 3-5〉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 규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청년가구주 가구 평균값	7.72	9.90	5.98	6.18	6.06	8.65	8.07	7.67	7.57	8.47
청년가구주 가구 중위값	5.85	5.94	5.94	6.07	6.39	6.10	6.29	6.19	6.10	6.65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자산 규모

부동산 보유가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규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부동산을 가진 가구의 자산 규모는 부동산을 갖지 않은 가구의 3.46배였다. 그 격차는 2016년 3.26배로 줄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3.97배까지 벌어졌다.

자산 규모 증가 폭도 부동산이 있는 청년가구주 가구가 더 컸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2012년 3억 5,983만 원에서 2021년 5억 6,846만 원으로 증가하여 9년 동안 5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부동산이 없는 가구는 2012년 1억 389만 원에서 2021년 1억 4,325만 원으로 37.8% 증가에 그쳤다.

〈표 3-6〉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자산 규모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치)

연도	부동산 있음 (A)	부동산 없음 (B)	A/B
2012	35983.58	10389.85	3.46
2013	35985.23	10248.88	3.51
2014	36077.16	10373.52	3.48
2015	37459.23	11373.11	3.29
2016	39448.83	12101.43	3.26
2017	43614.32	11878.83	3.67
2018	45942.05	12699.67	3.62
2019	47852.52	12908.14	3.71
2020	51529.43	13393.22	3.85
2021	56846.47	14325.76	3.97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 소결

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그 증가세가 전체 가구의 자산 규모보다 약하지만,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최근 10년 동안 자녀가구의 자산 규모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1인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규모와 그 변화폭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 규모가 크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 규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득 1분위 청년가구주의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비중이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가구주 가구의 급속한

부채 부담 확대가 그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와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의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이 높은 가구가 자산과 순자산뿐 아니라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즉, 부채가 경제적 부담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신용도가 높은 가구는 부채를 늘려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산을 키울 수 있으므로 부채는 자산 확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산 확대를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증가세는 가구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청년들 사이에 자산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단지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수 없다.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축적 현상과 불평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자산 실태분석은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가구 특성에 따라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청년 개인의 자산 현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청년의 자산을 다루는 앞으로의 연구가 개인 단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 개인들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청년의 부채 실태

1. 분석 개요

이 절에서는 청년의 부채 실태를 분석한다. 부채를 분석할 때 개인의 부채를 분석할 수도 있고 가구의 부채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개인의 부채를 분석하면 청년 개인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구 내에서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와 부채로 발생시킨 자원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거나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게 된다. 가구의 부채를 분석하게 되면 부채로 인한 자원을 공유하는 단위로서 가구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상태에 있는 청년이 부모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청년의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 가구의 부채를 분석하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만을 분석한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 실태는 부채의 잔액, 부채의 유형 및 용도, 그리고 부채상환 위험 상태를 분석한다. 부채의 존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 활동과 여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 잔액뿐만 아니라 부채를 어떻게 발생시켰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는데, 임대보증금은 대응 자산인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실질적인 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부채 잔액을 분석한다. 또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도 측정한다.

부채의 유형과 용도는 각각 4개, 5개로 구분하였다. 부채의 유형은 ①

금융기관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신용카드 관련 대출, ④ 외상 등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때 마이너스 통장은 금융기관 신용대출에 해당하며, 외상 등 기타에는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 할부금융 미결제 잔액, 외상 미결제 잔액, 개인·직장 등에서 빌린 돈, 갯돈을 탄 후 널 돈이 모두 포함된다. 부채의 용도는 ① 주거 마련, ② 사업투자, ③ 부채상환, ④ 생활비, ⑤ 기타로 구분한다. 주거 마련 용도에는 거주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포함되며, 사업투자 용도에는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금융자산 투자, 사업자금을 위한 부채가 포함된다. 또한 기타에는 기타, 교육비, 외상·할부 미결제 잔액, 빌린 돈, 널 갯돈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상환 위험 상태 또한 측정하였다. 부채상환의 위험 상태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행연구(전승훈, 조덕호, 2016; 박정민, 박호준, 오욱찬, 2017)를 검토하여 ① 소득 대비 부채비(DTI: Debt-to-Income), ②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Debt Service Ratio), ③ 자산 대비 부채비(DTA: Debt-to-Asset)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마다 부채상환 위험 상태의 기준은 상이한데,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와 자산 대비 부채비는 300% 이상,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는 30% 이상을 위험 상태로 간주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부채상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은 가처분소득, 자산은 금융자산을 적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세 가지 부채상환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부채상환 중복위험 상태 또한 측정하였다.

부채 잔액과 부채상환 위험을 측정할 때 모든 부채, 소득, 자산 항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21년 실질가치로 전환하였으며, 모든 분석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3-7〉 부채 분석 지표

구분		정의
부채 잔액	부채 잔액	금융부채 잔액(2021년 실질가치)
	부채 보유 비율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부채 유형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융기관 신용대출(마이뉴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등 기타	신용카드 미결제 잔액, 할부금융 미결제 잔액, 외상 미결제 잔액, 개인·직장 등에서 빌린 돈, 갯돈을 탄 후 낼 돈
부채 용도	주거 마련	거주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사업·투자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금융자산 투자, 사업자금
	부채상환	부채상환
	생활비	생활비
	기타	기타, 교육비, 외상·할부 미결제 잔액, 빌린 돈, 낼 갯돈
부채 상환 위험 지표	소득 대비 부채비(DTI)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잔액 비율, 300% 이상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3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DTA)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잔액 비율, 300% 이상
	부채상환 중복위험	세 가지 부채상환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료: 필자 작성.

2. 부채 보유 실태

가. 부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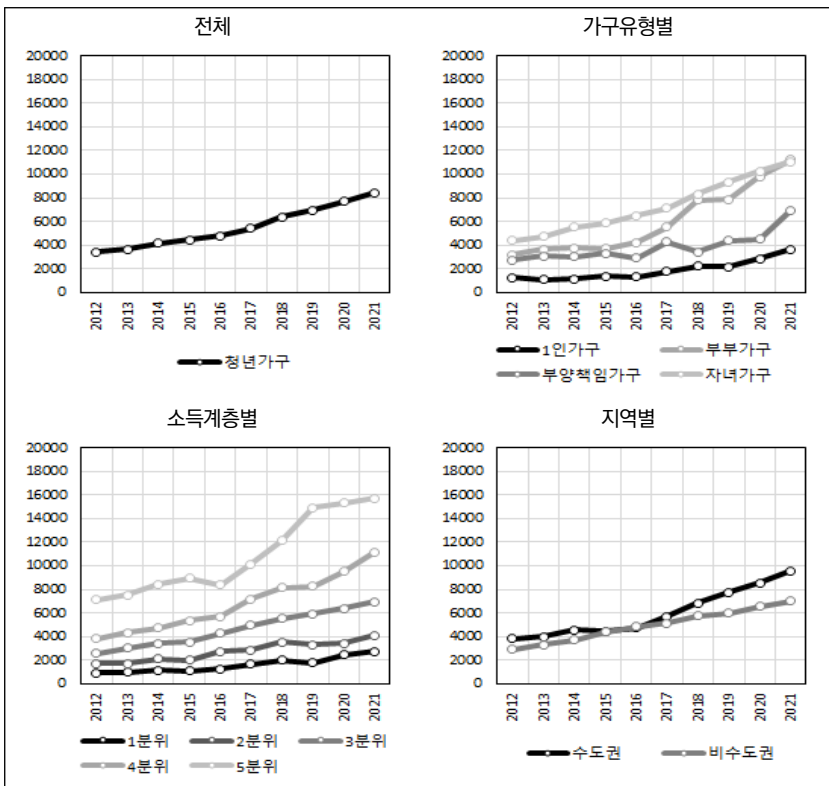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잔액(금융부채)을 [그림 3-4]에 제시하였다. 이는 부채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잔액은 2012년 3,405만 원에서 2021년 8,455만 원으로 약 2.5배 상승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가구유형별로 볼 때에도 모든 가구유형에서 부채 잔액이 상승하였고 특히 2017년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 중에서는 1인가구의 부채 잔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가구와 자녀가구의 부채 잔액이 높은 편이다. 특히 부부가구의 상승세가 매우 빨라 2021년

에는 자녀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고분위일수록 부채 잔액 수준이 높으며, 상승세 또한 빠르다. 특히 소득 5분위의 경우 2016년 8,387만 원이었던 부채 잔액이 2019년에는 1억 4,935만 원으로 늘어나 3년 사이에 78%의 급증세를 보인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2016년 이후 수도권 청년가구에 가구의 부채 상승 속도가 빨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림 3-4] 부채 보유 잔액: 전체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격)



주: 청년가구에 주 가구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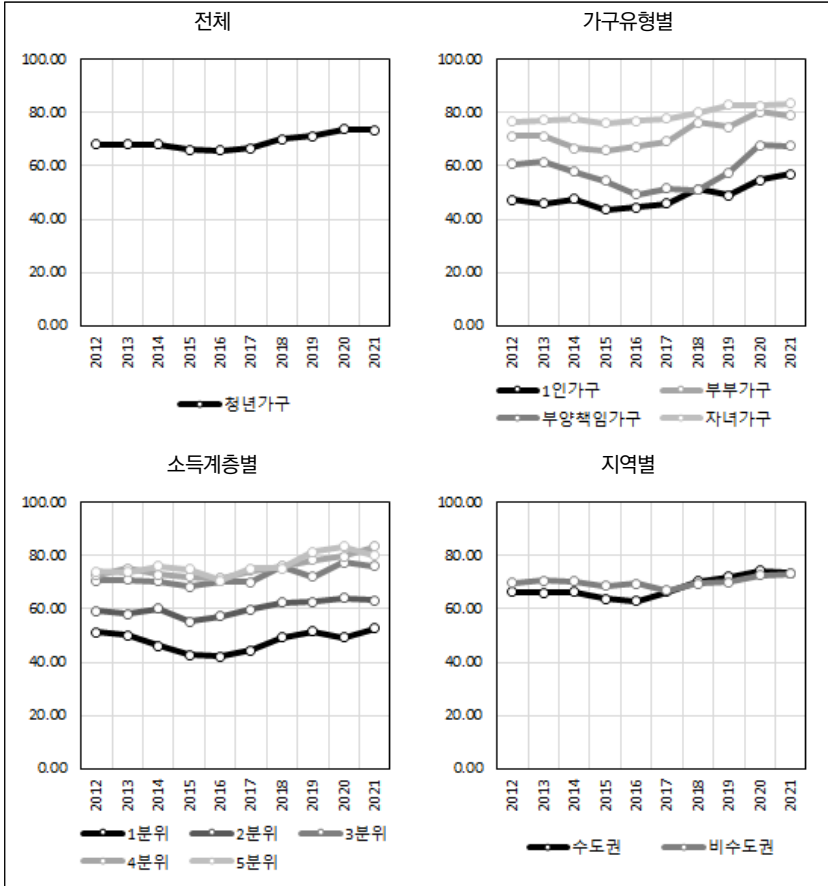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5]를 보면 청년가구주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 잔액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12년 68.00%에서 2016년에는 65.87%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1년에는 73.45%에 이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1인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이 낮고 자녀가구의 보유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부부가구와 부양책임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모든 가구유형에서 2017년 이후 부채 보유 비율이 상승하였다. 소득분위별 보면 고분위일수록 부채 보유 비율이 높으며, 대체로 2017년 이후에 그 수준이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2010년대 초반 부채 보유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2018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2017년 이전에는 비수도권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는데, 2017년 이후에는 수도권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7년 이후 부채 보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3-5] 부채 보유 비율

(단위: %)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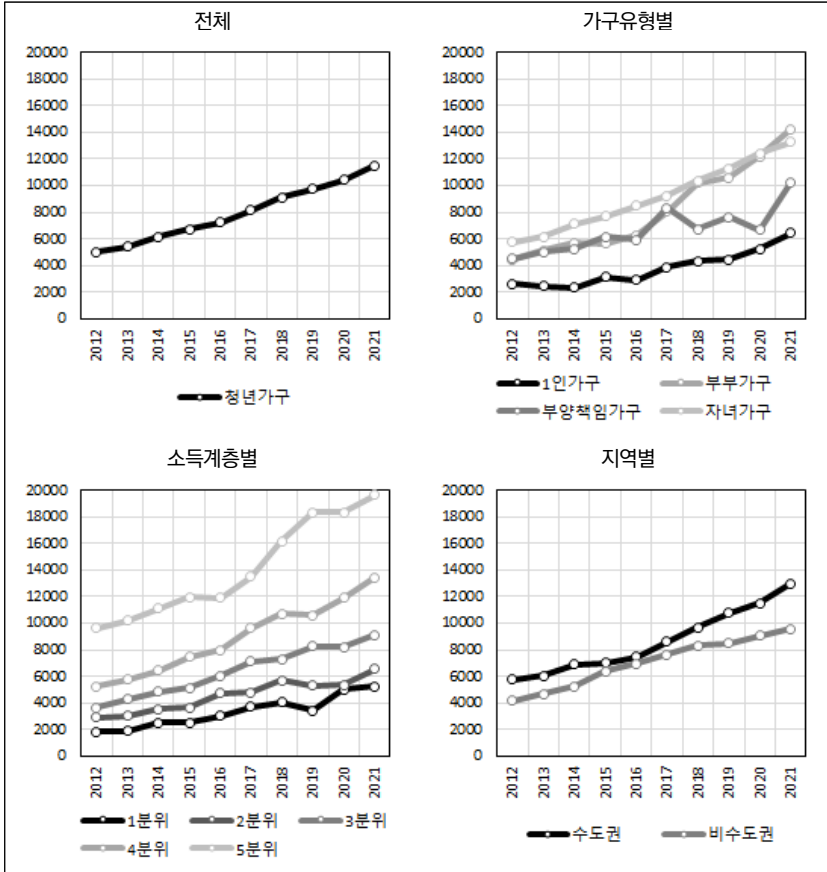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청년가구주 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여 보유 잔액을 살펴본 결과를 [그림 3-6]에 제시하였다. 부채를 보유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 5,008만 원에서 2021년 1억 1,511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부채를 보유한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부채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부가구의 부채 잔액이 급증했는데, 2016년 4,464만 원에서 2021년 1억 4,220만 원으로 약 3.2배 증가하였다. 또한 모든 소득분위별 부채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부채 잔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부채를 보유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잔액은 2010년대 초반에 격차가 줄어들어 2016년에는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후에 다시 벌어져 2021년에는 수도권의 부채 잔액이 비수도권보다 3,453만 원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3-6]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단위: 만원/년, 2021년 실질가격)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나. 부채 유형별 보유 실태

부채 유형별 부채 잔액을 <표 3-8>에 제시하였다. 이는 유형별 부채 잔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청년가구주 가구의 총 부채 잔액은 평균 8,455만 원인데, 그중 약 79%에 해당하는 6,649만 원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다.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다음으로 많은 1,342만 원이며, 외상 등 기타 432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33만 원으로 나타난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비교적 소액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융기관 신용대출, 외상 등 기타 부채의 잔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2012년 2,587만 원에서 2021년 6,649만 원으로 2.6배, 금융기관 신용대출은 2012년 670만 원에서 2021년 1,342만 원으로 2.0배 상승하였다. 외상 등 기타 부채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2012년 99만 원에서 2021년 432만 원으로 4.4배 상승하였다.

<표 3-8> 유형별 부채 보유 잔액: 전체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기관 담보대출	2,587	2,855	3,348	3,509	3,762	4,172	4,829	5,398	5,964	6,649
금융기관 신용대출	670	661	682	757	854	876	1,096	1,148	1,309	1,342
신용카드 관련 대출	50	58	56	54	42	46	52	49	64	33
외상 등 기타	99	111	94	123	113	351	390	363	357	432
총 부채 잔액	3,405	3,685	4,180	4,443	4,770	5,445	6,367	6,959	7,693	8,455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9>에서 유형별 부채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 잔액을 보유한 비율이 50.86%로 가장 높다. 2012년

에는 37.62%에 머물렀지만 10년 사이에 10%p 이상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보유한 비율도 2012년 26.97%에서 2021년 31.10%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2018년 이후에 상승하였다. 2021년 기준 신용카드 관련 대출 보유 비율은 3.55%, 외상 등 기타 대출의 보유 비율은 23.52%로 나타나며 뚜렷한 추세 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표 3-9〉 유형별 부채 보유 비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기관 담보대출	37.62	39.42	43.18	42.30	43.23	43.68	45.78	48.61	50.55	50.86
금융기관 신용대출	26.97	28.89	27.86	26.82	26.89	25.07	26.97	29.27	30.53	31.10
신용카드 관련 대출	6.94	8.37	7.59	6.65	5.02	4.11	4.80	5.13	5.78	3.55
외상 등 기타	34.85	32.55	26.90	25.06	23.69	27.36	28.93	28.65	27.80	23.52
총 부채 잔액	68.00	68.10	68.14	66.01	65.87	66.71	70.02	71.20	73.66	73.45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채 유형별로 부채 잔액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여 평균 부채액을 산출한 결과를 〈표 3-10〉에 제시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3,072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2012년 6,875만 원에 비해 1.9배 상승한 것이다.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 잔액은 2012년 2,484만 원에서 2021년 4,314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을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액은 2021년 939만 원으로 나타나며, 그 수준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상 등 기타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액은 2012~2016년에는 500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2017~2021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특히 2021년에는 1,83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0〉 유형별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기관 담보대출	6875	7242	7754	8297	8701	9551	10548	11105	11798	13072
금융기관 신용대출	2484	2288	2448	2822	3174	3494	4064	3922	4287	4314
신용카드 관련 대출	724	689	734	816	845	1115	1079	964	1101	939
외상 등 기타	283	342	351	491	475	1284	1347	1268	1283	1835
총 부채 잔액	5008	5411	6135	6732	7242	8162	9093	9774	10444	11511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 부채 용도별 보유 실태

부채 잔액을 용도별로 산출한 결과를 〈표 3-11〉에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부채 용도별로 부채 잔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보유 잔액이 5,820만 원으로 총 부채 잔액의 약 69%를 차지한다. 사업·투자 용도의 부채 잔액이 1,398만 원, 기타 부채가 826만 원, 생활비 용도의 부채가 303만 원,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가 109만 원 순이다.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는 2012년 2,016만 원에서 2021년에 2.9배 높아졌으며, 사업·투자 목적의 부채도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1.6배 상승하였다.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는 최근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표 3-11〉 용도별 부채 보유 잔액: 전체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 마련	2016	2236	2581	2955	3277	3586	4093	4720	5175	5820
사업·투자	852	829	949	814	900	1054	1354	1288	1349	1398
부채상환	45	46	68	57	60	82	50	65	104	109
생활비	206	237	250	252	220	208	216	253	284	303
기타	286	337	333	365	312	515	654	633	781	826
총 부채 잔액	3405	3685	4180	4443	4770	5445	6367	6959	7693	8455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12〉에서 용도별 부채 보유 비율을 보면,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를 보유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2021년 48.82%로 나타난다. 이는 2012년 33.54%에서 약 15%p 상승한 것이다. 다른 용도의 부채 보유 비율에서는 뚜렷한 상승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3-12〉 용도별 부채 보유 비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 마련	33.54	34.73	37.34	38.74	39.96	40.70	43.54	46.08	47.65	48.82
사업·투자	9.83	9.21	9.99	8.61	8.71	9.27	9.74	10.68	10.97	10.19
부채상환	1.74	2.13	2.33	1.74	1.56	1.82	1.69	1.96	2.02	2.07
생활비	13.43	15.21	15.26	14.43	13.86	12.62	12.72	13.64	15.28	13.96
기타	42.19	41.28	36.35	34.25	31.51	32.85	35.60	35.19	36.15	31.48
총 부채 잔액	68.00	68.10	68.14	66.01	65.87	66.71	70.02	71.20	73.66	73.45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13〉은 용도별 부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평균 부채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주거 마련 용도의 부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균 부채액은 2021년 1억 1,92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의

6,012만 원에에서 약 2배 상승한 것이다. 사업·투자 용도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액도 2012년 8,663만 원에서 2021년 1억 3,722만 원으로 약 1.6배 상승하였다. 전체 부채 잔액의 평균은 사업·투자 용도보다 주거 마련 용도가 더 높지만, 부채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면 사업·투자 용도의 부채액이 주거 마련 용도의 부채액보다 높다.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액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2017년과 2020~2021년에 특히 높게 나타난다. 생활비 용도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평균 부채액 또한 등락이 거듭되지만 2019~2021년의 부채액이 그 이전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다.

〈표 3-13〉 용도별 부채 보유 잔액: 부채 보유자

(단위: 만원/연, 2021년 실질가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 마련	6012	6439	6911	7629	8202	8811	9399	10243	10861	11921
사업·투자	8663	8998	9493	9458	10339	11375	13900	12067	12292	13722
부채상환	2561	2175	2932	3293	3879	4499	2953	3313	5152	5290
생활비	1537	1558	1636	1745	1588	1645	1699	1854	1862	2169
기타	679	817	916	1065	991	1569	1838	1800	2159	2624
총 부채 잔액	5008	5411	6135	6732	7242	8162	9093	9774	10444	11511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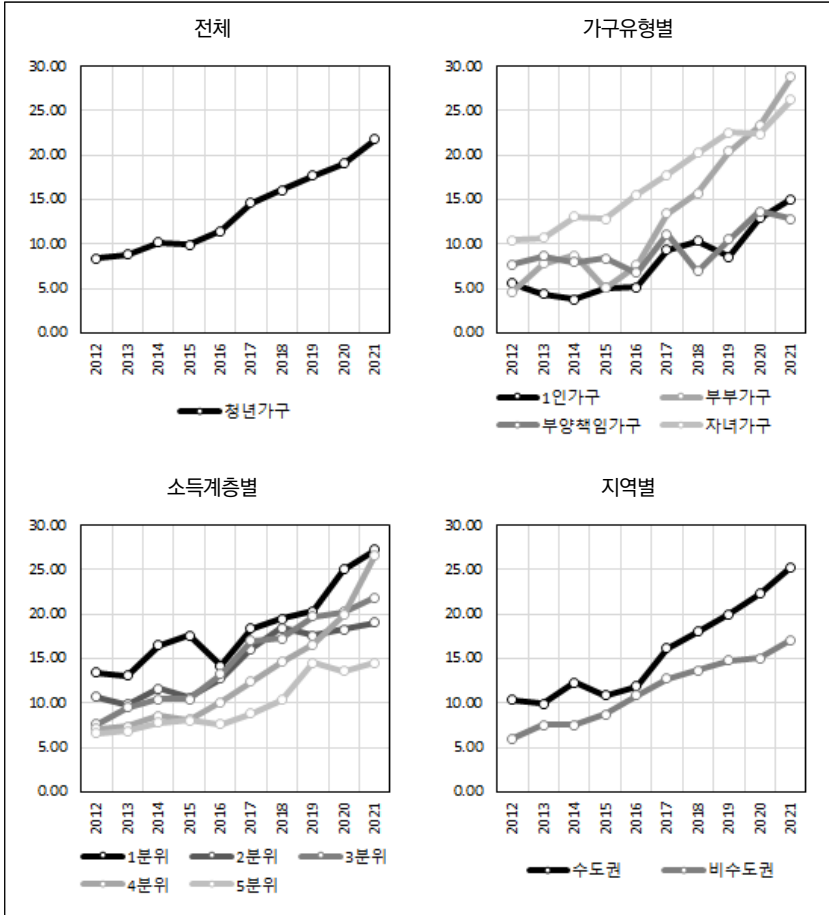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 부채상환 위험

부채상환 위험을 우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잔액의 비율, 즉 소득 대비 부채비(DTI)가 300% 이상인지로 측정하여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그림 3-7]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 비율

(단위: %)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300% 이상인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012년 8.37%에서 2021년 21.75%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와 자녀가구의 위험 비율이 높으며, 1인가구와 부양책임가구의 위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부부가구와 자녀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 비율은 2016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대체로 저분위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비(DTI)가 300% 이상인 비율이 높다. 다만 4분위 가구의 위험 비율이 2016년부터 급속하게 상승하여 2021년에는 1분위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위험 비율이 더 높는데, 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빨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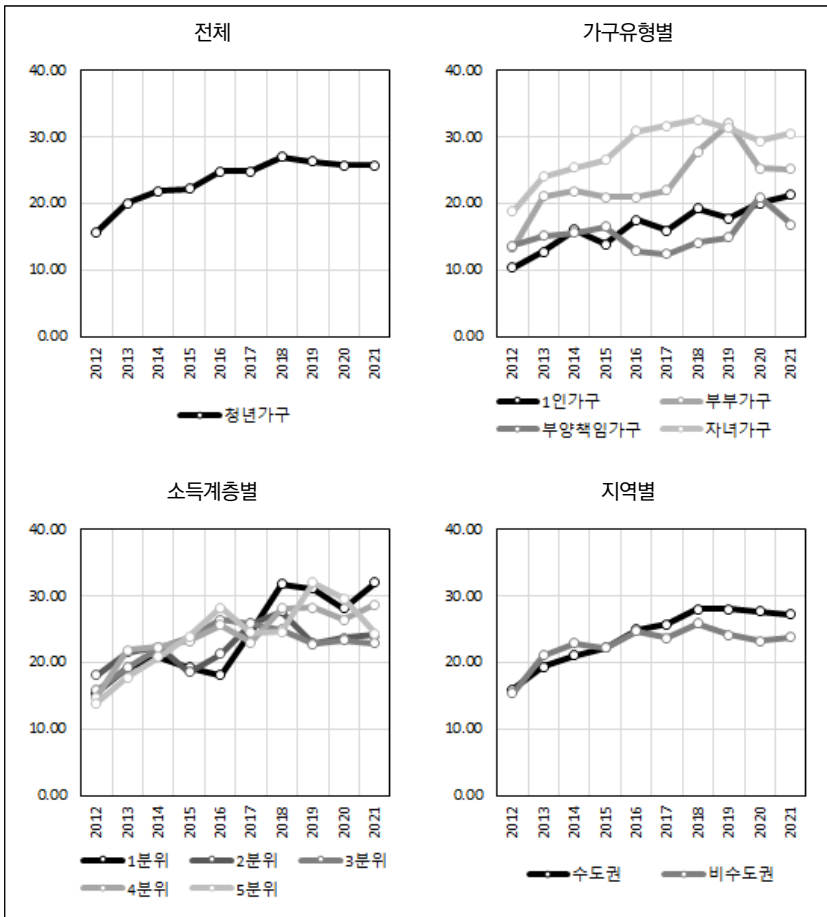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3-8]에는 두 번째 부채상환 위험 지표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인 비율을 제시하였다. 청년가구주 가구 중에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인 비율은 2012년 15.74%에서 2021년 25.78%로 약 10%p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2018년까지 두드러지며,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1년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부양책임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위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것과 달리, 나머지 가구유형의 위험 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 비율은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으며, 연도별로 순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 비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4~2016년에는 소득 1~2분위, 2019~2021년에는 소득 5분위의 위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2017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 비율 격차가 다

소 커지고 있다. 2012~2018년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 비율 모두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8년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림 3-8]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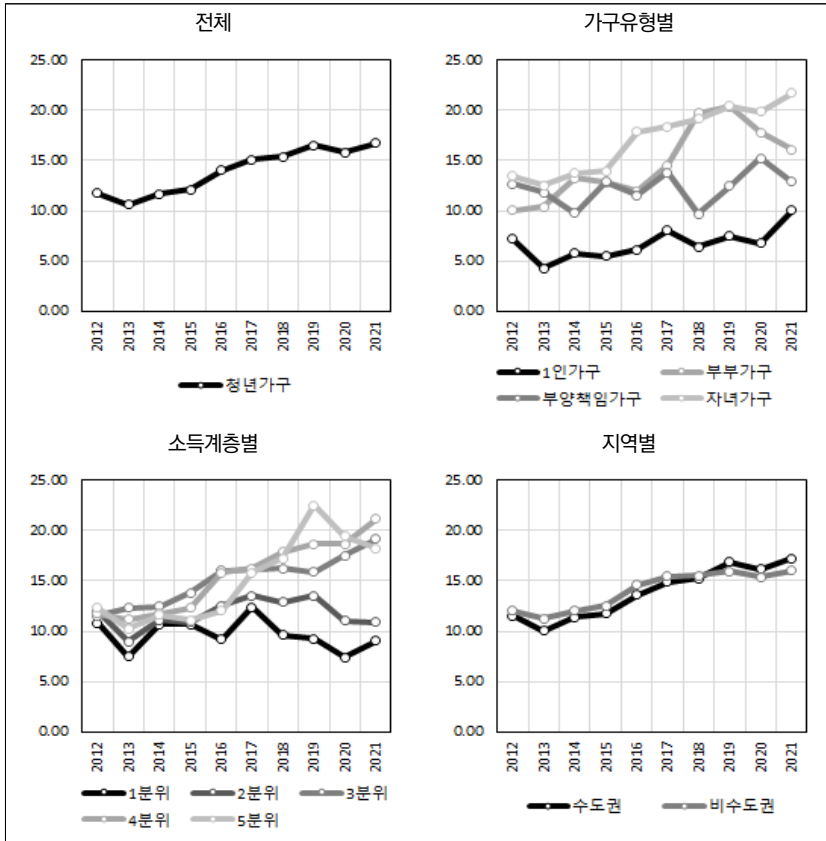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상환액은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융부문 가구만 조사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9]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로 측정한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비율을 제시하였다.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비율을 보면 2012년에 11.77%에서 2021년에는 16.72%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9~2021년에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9]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 비율

(단위: %)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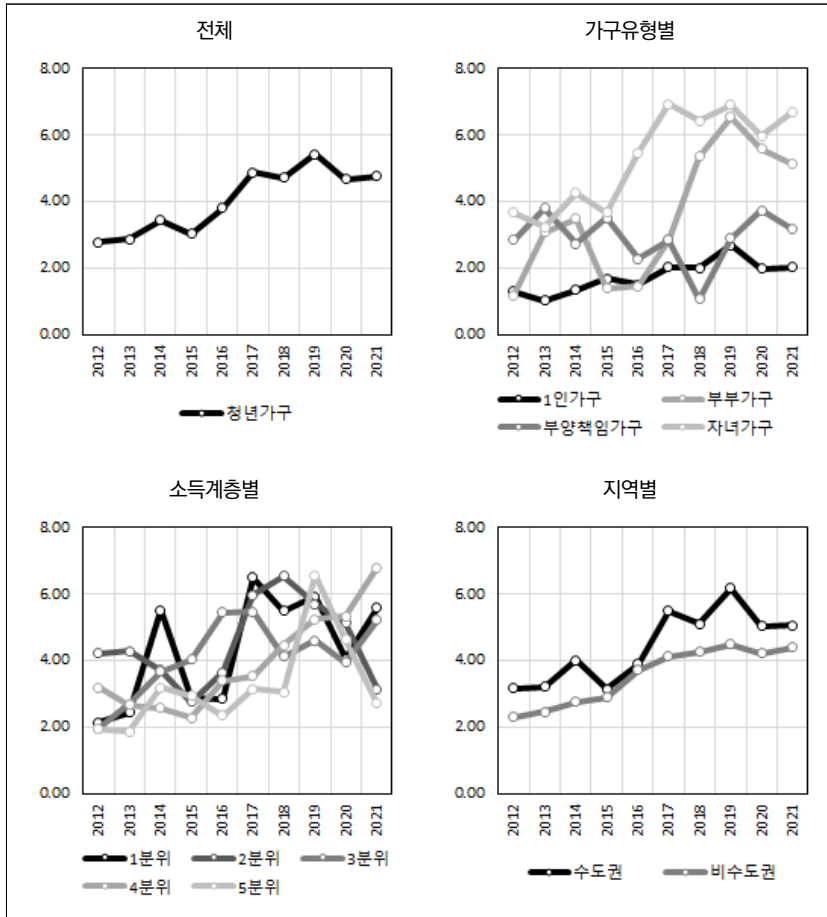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자녀가구, 부부가구, 부양책임가구, 1인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자녀가구의 위험 비율이 비교적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2010년대 전반기에는 소득계층별 위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소득 고분위일수록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비율이 높은데, 1~2분위는 2017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0]은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의 세 가지 부채상환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세 가지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012년 2.79%로 나타났다. 이후 이 비율은 2019년에 5.43%까지 상승하였는데,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21년에는 4.77%를 보인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상환 중복위험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자녀가구, 부부가구, 부양책임가구,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가구와 부부가구는 2010년대 중반에 부채상환 중복 위험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시간에 따른 추세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상환 중복위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0] 부채상환 중복위험 비율

(단위: %)



주: 청년가구주 가구 대상 분석. 부채상환 중복위험 상태는 소득 대비 부채비 300% 이상,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 3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 300% 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상환액은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융부문 가구만 조사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4.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최근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가구주 가구의 73.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를 보유한 경우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 원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부채 보유 비율 68.00%와 평균 부채액 5,008만 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하위 집단별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구유형별로 부채 악화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자녀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혼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부채의 유형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채의 용도에서 주거 마련 용도의 부채 잔액이 가장 큰 것과 관련된다. 그만큼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발생은 주거와 가장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사업·투자 용도의 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 부채상환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액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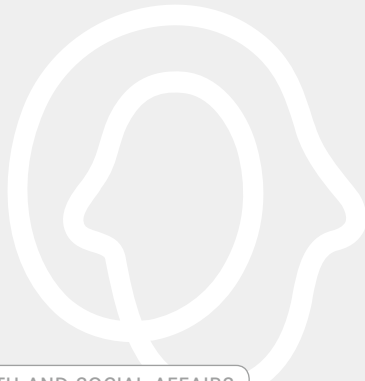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부채상환의 위험을 세 가지 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2021년 청년가구주 가구 중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은 21.75%,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은 25.78%,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은 16.72%로, 상당수의 청년가구주 가구가 부채상환 위험 상태에 있었다. 또한, 세 가지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는 4.77%로 나타난다. 이들 지표 중에서 최근 들어 일부 정체 상태인 것도 있지만 대

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를 소득이나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나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를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

제1절 자산 관련 인식 변화

제2절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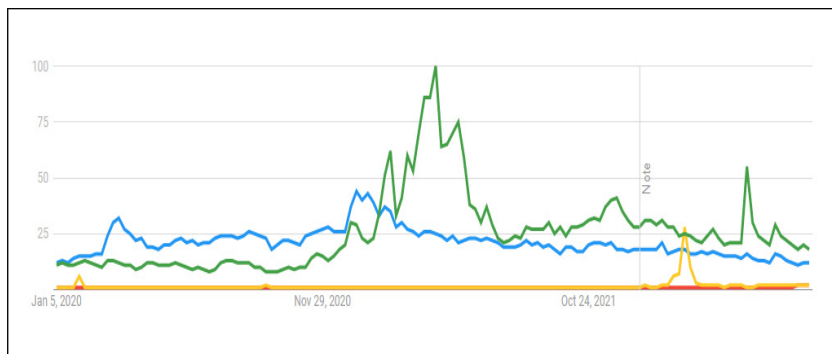
제4장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

제1절 자산 관련 인식 변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 사람들이 구글(Google)에서 검색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식’ 관련 검색어는 2020년 초부터 11월까지 1위를 차지하다가, 이후에는 ‘코인’ 관련 검색어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8월까지 1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초에는 ‘적금’ 검색량이 ‘코인’과 ‘주식’ 검색량보다 일시적으로 많아졌는데, 이는 청년희망적금의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주요 키워드(주식, 예금, 적금, 코인) 검색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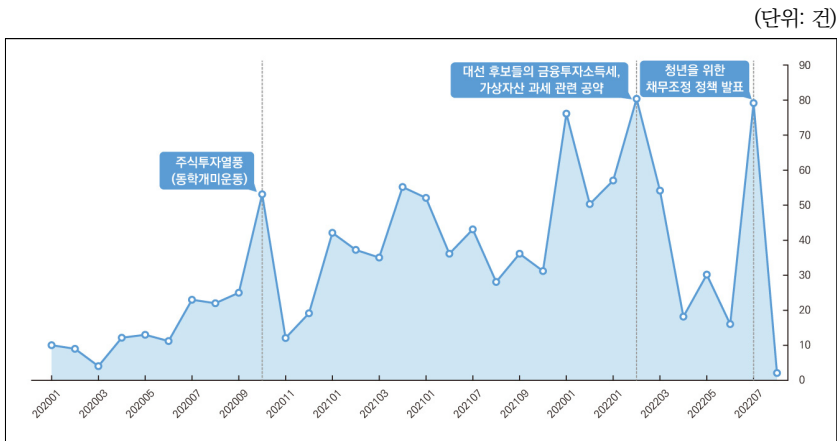


주: 1) 파란색 - 주식, 빨간색 - 예금, 노란색 - 적금, 초록색 - 코인, 2)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자료: 구글트렌드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0-01-01%2022-08-02&geo=KR&q=%EC%A3%BC%EC%8B%9D,%EC%98%88%EA%B8%88,%EC%A0%81%EA%B8%88,%EC%BD%94%EC%9D%B8](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0-01-01%202022-08-02&geo=KR&q=%EC%A3%BC%EC%8B%9D,%EC%98%88%EA%B8%88,%EC%A0%81%EA%B8%88,%EC%BD%94%EC%9D%B8) 에서 2022.08.02. 인출.

다음으로, ‘주식’과 ‘청년’의 키워드를 포함한 신문 기사 수를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 4-2]와 같이 다소 등락폭이 있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청년들 사이에서 부는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해, 관련 기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2년 초에는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관련 기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여름에는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소 주춤하였던 관련 기사 수가 다시금 증가하였다.

[그림 4-2] ‘주식’과 ‘청년’에 관한 월간 기사 숫자



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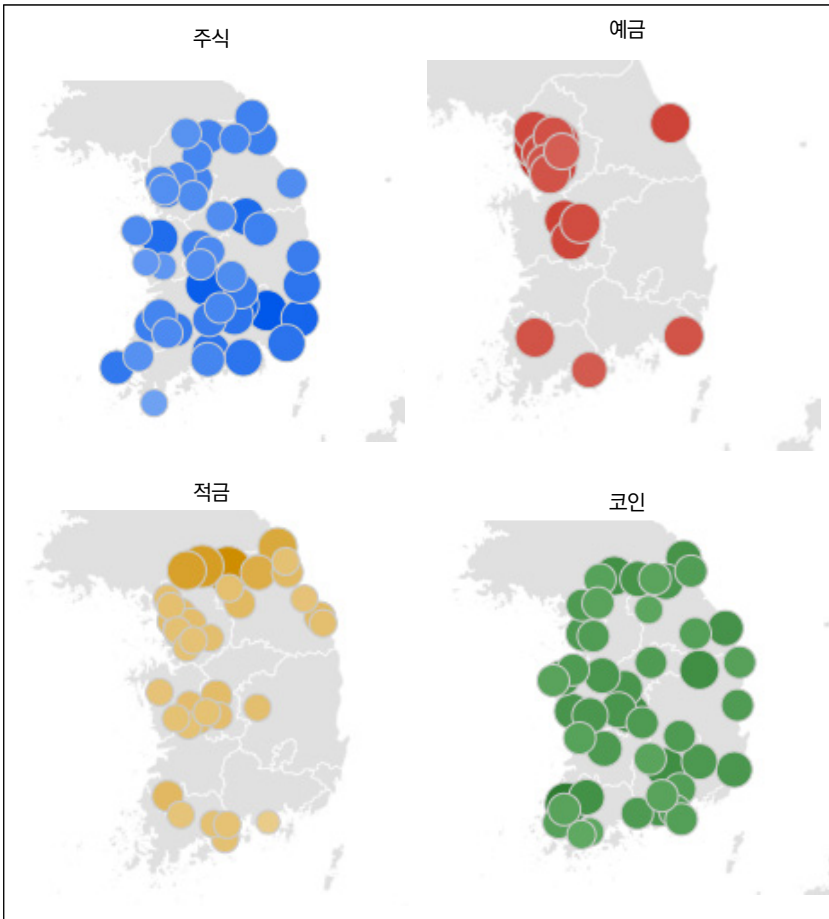
참고: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에서 2022.08.03. 인출.

지역별로 주요 키워드 검색 분포를 살펴보면, ‘주식’과 ‘코인’의 경우, 전국에 걸쳐 검색 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적금’ 검색량은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등지에 주로 분포된 반면, 경상도에서의 검색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금’의 경우에

도 서울, 경기도, 인천, 즉 수도권 지역과 세종 및 대전 지역에서 검색량이 많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림 4-3] 지역별 주요 키워드(주식, 예금, 적금, 코인) 검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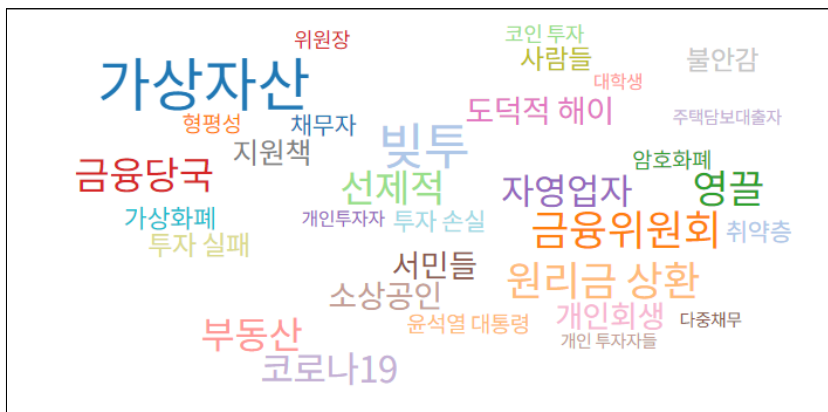


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자료: 구글트렌드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0-01-01%202022-08-02&geo=KR&q=%EC%A3%BC%EC%8B%9D,%EC%98%88%EA%B8%88,%EC%A0%81%EA%B8%88,%EC%BD%94%EC%9D%B8> 에서 2022.08.02. 인출.

‘주식’과 ‘청년’을 포함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빚투’였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의 약자로, 전례 없는 투자 열풍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용어로 꼽힌다.

[그림 4-4] ‘주식’과 ‘청년’ 관련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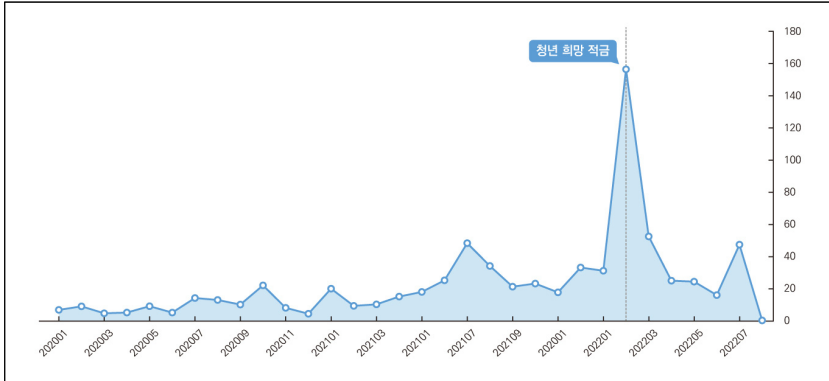


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참고: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에서 2022.08.03. 인출.

‘적금 또는 예금’ 그리고 ‘청년’의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2020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해온 월간 기사 숫자가, 2022년 초 청년희망적금의 인기와 더불어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5] '적금 또는 예금'과 '청년'에 관한 월간 기사 숫자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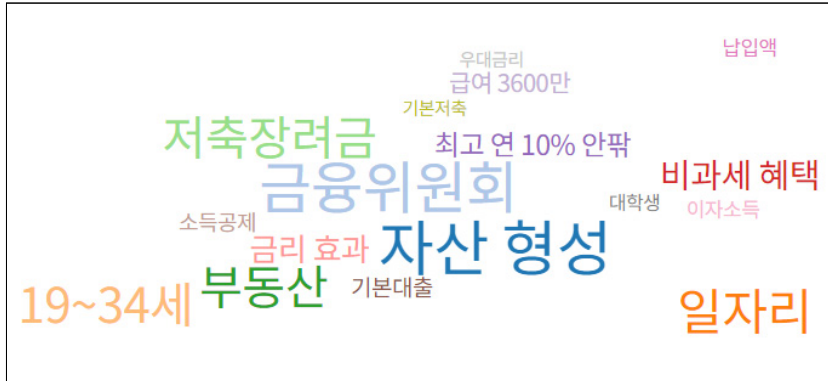
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참고: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에서 2022.08.03. 인출.

‘적금 또는 예금’ 그리고 ‘청년’을 포함한 연관어 분석 결과, ‘자산형성’이라는 단어 빈도수가 많았다. ‘금융위원회’와 ‘저축장려금’ 단어 빈도수 역시 높았다. 주요한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희망적금의 인기도와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을 담당하는 곳이고,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자에게 정부가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중 이자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림 4-6] '적금 또는 예금'과 '청년'에 관련 워드클라우드



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01.01.부터 2022.08.02.까지 검색된 자료임.

참고: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자료: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에서 2022.08.03. 인출.

제2절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

1. FGI 면담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성, 지역, 학력, 직업, 주거독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19~39세의 청년들을, 이행주기별 총 5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참여자

청년의 이행단계별, 즉 직업적 이행, 주거 독립, 경제적 독립, 그리고 가족 형성 등의 다양한 이행단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미혼청년은 3그룹으로, 기혼청년은 2그룹으로 구성하고, 각 그룹당 4명을 모집하였다.

미혼청년의 경우, 경제적 독립 여부와 주거 독립은 그룹 당 5:5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 주거비용(월세비용, 보증금, 전세자금 마련 등)이나 생활비 등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 독립은 원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혼청년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는 찾기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생활비를 일부 보태거나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금액의 일부를 보조한 경우는 경제적 독립으로 보고, 이들도 포함하였다. 기혼청년의 경우, 주거 이행 과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그 외 표집기준으로는 성, 지역, 학력 등도 고려하였다. 성비는 남자와 여자 5:5를 기준으로 모집하였다.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상 모집하였으나, 참여자 모두 대졸 출신이었다. 직업의 경우,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이들만을 모집하였다.

[그림 4-7] 면접대상자 표집



주: 1) 부모와 동거는 말 그대로 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의미함.
2) 부모와 분가는 원 가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관계를 의미함.
자료: 필자 작성.

나. 조사 내용 및 방법

FGI 면접조사 질문지 내용은 <표 4-1>과 같다. 우선, FGI 면담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는, 응답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질문하

였다. 네 번째는 청년 자산형성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즉, 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여 경험, 정책 욕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은 향후, 본인 그리고 동 세대 청년의 자산 현황과 전망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FGI 면담조사가 반구조화 면접임을 고려할 때, 실제 조사에서는 그룹별 특성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문항의 일부 순서가 변경 및 조정되었다.

FGI 면담조사는 2022년 8월 18~23일에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각 면담조사에 2인이 1조로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조사가 실시되기 전, 참여자는 연구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으며, 또한 간단히 본인의 기본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질문지에 체크하였다. 면담조사는 주 면접자가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보조 면접자는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고 누락되었거나 추가 보완할 내용들을 면담 후반부에 물어보았다.

〈표 4-1〉 FGI 면접조사 질문지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주거점유 형태, 동거가족 유무 및 명수 등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 발생 동기, 발생한 자산 관리 방식, 부채 발생 이유,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 부채상환 예정 시점 등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현상	재테크 열풍 발생 이유 및 관련 현상에 대한 인식,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투자 경험, 적금·예금 등에 대한 인식 등
청년의 자산형성에 대한 공공의 역할	이행기별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경험 및 개선사항, 정책 욕구 등
향후 전망	10년 후 미래 청년들의 경제 상황 10년 후 본인의 경제 상황

자료: 필자 작성.

다. 윤리적 고려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문서번호 제 2022-065호, 2022.7.26.). 실제 면담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본정보가 제3자로부터 식별되지 않도록, 이름과 기타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하거나 삭제하였다.

녹취된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 내용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 8을 사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의 편의와 타당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김혜연, 2014). 이를 통해, 녹취된 자료에 코딩, 메모 등을 표기하였다. 그 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코드 간의 관계에 파악하고, 필요시 코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들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연구진 간의 회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라. 연구 참여자 현황

FGI 면담조사에 참여한 이는 총 20명이다. A1 그룹은 실업·취업준비생 집단이고, A2 그룹은 미혼 정규직 집단, A3 그룹은 미혼 비정규직 집단, B1 그룹은 기혼 유자녀 집단, B2 그룹은 기혼 무자녀 집단이다. 이들의 자세한 특징은 <표 4-2>, <표 4-3>과 같다.

〈표 4-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미혼청년

그룹	사례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취업 상태 (형태)	부모 동거	최종학력
A1	S1	남	25	서울	취업준비생	부모 동거	4년제 졸
	S2	남	28	서울	미취업	부모 비동거	4년제 졸
	S3	여	28	경기	취업준비생	부모 동거	4년제 졸
	S4	여	27	서울	미취업	부모 동거	전문대 졸
A2	S5	남	28	서울	정규직	부모 동거	4년제 졸
	S6	남	31	서울	정규직	부모 비동거	4년제 졸
	S7	여	24	서울	정규직	부모 동거	4년제 졸
	S8	여	27	서울	정규직	부모 비동거	4년제 졸
A3	S9	남	35	서울	비정규직	부모 동거	4년제 졸
	S10	남	33	인천	비정규직	부모 비동거	4년제 졸
	S11	여	35	서울	비정규직	부모 동거	4년제 졸
	S12	여	26	서울	비정규직	부모 비동거	4년제 졸

자료: 필자 작성.

〈표 4-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기혼청년

그룹	사례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주택점유형태	자녀 유무	최종학력
B1	M1	남	38	서울	자가	자녀 있음	대학원 졸
	M2	남	37	경기	전월세		4년제 졸
	M3	여	35	경기	자가		4년제 졸
	M4	여	31	서울	전월세		전문대 졸
B2	M5	남	38	경기	자가	자녀 없음	4년제 졸
	M6	남	39	서울	전월세		4년제 졸
	M7	여	37	서울	자가		4년제 졸
	M8	여	35	서울	전월세		4년제 졸

자료: 필자 작성.

2. FGI 면담조사 분석 결과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1) 자산 현황 및 형성 방식

미혼청년의 자산 규모는 현재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달랐다. 우선, 실업·취업준비생의 경우, 본격적인 자산형성에 뛰어들기보다는, 구직을 위해 현재 자기계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보통 1억 원 미만의 자산을 축적하였다. 보통 가족 및 주변 지인의 권유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미혼청년이 자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 방법은 근로형태별로 달랐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예금·적금 같은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펀드, 달러 엔화 등 외화 투자, 코인,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매우 다양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었다. 비록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잠시 줄인 이들도,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금 금융자산 비중, 특히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들에게 예·적금은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닌, 소비 지출 통제的手段으로 종종 인식되었다.

저는 지금도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원자재도 사고 엔화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고,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려서 계속 할 거 같고, 그냥 다양하게 계속 해볼 거 같아요. (S7)

저도 예금, 적금 일단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큰돈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스스로 경제관념도 생기고, 그런 걸로 아끼는 습관도 생겨야지, 어차피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S8)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미혼청년은 예·적금, 단기적금, 파킹통장 등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보유하되, 원금이 안전하게 보전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들에게 예금과 적금 등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근로소득 외에, N잡, 즉 단기알바나 부업을 통해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고자 하였다. 혹은,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저도 온라인으로 주로 부업을 찾아보는 편인데, 미스터리 쇼퍼라고 있더라고요. 매장 가서 손님인 척하면서 설문조사해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인데, 그것도 해본 적 있고. 아니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었던 거 같아요. (S9)

지금 다니는 회사는 사실 직종을 아예 바꾸기 위한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일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S10)

한편, 기혼청년에게 가족, 특히 자녀의 존재 자체는 이들에게 자산 형성 및 증식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였으며 총 자산 규모는 보통 억대 이상이였다. 자가를 소유한 이들 중, 일부는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기혼청년이 자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 방법은 예·적금, 주식과 코인, 채권, 펀드, 청약통장, 부동산 등과 같이 정규직에 종사하는 미혼청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였다. 적금은 이들에게 목돈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자 소비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비상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생활 초반부터 결혼생활 초반까지 주식과 코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정 정도의 자산이 형성된 후에는 그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업을 통해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업의 기반으로 다지려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적금 통장을 만드는 등 자녀의 자산형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 20대 중후반에 첫 취직하고 주식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서 ... 그냥 무조건 다달이 100만 원씩 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1년 동안 쪽 12달 샀는데, 그때는 한 20, 30% 정도 이익을 봤고, 그다음부터는 주식에서 재미를 계속 못 봤어요. (M1)

...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항상 저축하는 거 통장을 만들어서, 애들 일정 부분씩 계속 저축을 해 주고 있거든요. (M2)

저는 사실 적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통장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한 달 한 달 벌어가는 돈에, 제 과소비를 막아주기도 해요. 또 적금을 뵈다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미래에 투자를 할 때 종잣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대출을 받고 하면 늦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청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제 미래를 위해서는 적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M7)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 광고 애드포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아직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M8)

무자녀 및 무주택 기혼청년의 경우, 한 가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은 법적 혼인신고를 연기함으로써, 주택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소득 기준과 자녀 유무 역시 청약 당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 공고 즈음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혼청년의 자격으로 청약을 시도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혼인신고도 안 했었어요. 저희가 작년 X월에 XXX 분양 당첨이 됐었는데,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어요. 해도 어차피 소득 때문에 안 되고, 자녀가 없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M8)

이러한 행태는 한 유자녀 기혼청년도 목격한 바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친구가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한부모 특공을 통해 당첨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결혼 직후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당첨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에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다른 친구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그걸로다가 한부모 가정으로 청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법대로 그냥 솔직하게 FM대로 사는 나만 바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M3)

특히, 무자녀 기혼여성들은 일정 수준의 자산을 이루기 전까지는 잠시 가족계획을 미루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최대한 늦추고,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하고자 하였다.

제가 휴직해서 들어가게 되면, 육아 휴직은 여자가 많이 손해가 있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밀릴 것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돈도 돈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막상 육아 휴직 들어가면 제만큼의 연봉이 확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신랑 동의하에. (M7)

2) 부채 현황

미혼청년의 부채는 주로 정부가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었다. 그 외 일부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서 대출받거나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으로 메꾸기도 하였다. 다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미혼청년은 전세대출 외에도, 중고차 대출, 주택청약 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대출 유형이 매우 다양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거든요.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가지고 합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도 전세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거든요. 그거랑 제 돈 좀 해서 보증금을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S6)

중고차 대출 해가지고 반 정도에서 300만 원 정도 중고차 대출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 아직 다 못 갚았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조금 조금씩 내다 보니까 3,400 정도 남아서 그 정도. (S11)

한편, 기혼청년의 부채는 미혼청년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종류 역시 다양하였다. 무자녀 기혼청년의 부채는 주로 결혼 준비로 인한 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었다. 특히, 결혼 후에 신혼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주거 대출이 발생하였다.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게 되어서 진행했었고, 다행히 아내와 맞벌이하고 양 가족이 도와주시기도 해서 집을 사게 되어서 대출을 받게 되어서, (월급) 전체 20% 정도는 대출 나가고 있고, 60% 정도는 적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파킹 통장이 라고 하죠. 급할 때나 이때 쓸 수 있게. (M5)

유자녀 기혼청년의 부채는 주로 주택, 부동산, 혹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무자녀 기혼청년 그룹과 달리, 부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

들에게 부채는 자산을 증식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었고, 일부는 부채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활용하여 자산 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출 상환을 미루는 경향도 보였다.

저는 지금 일단 부동산 부채는 없고 임대용으로 갖고 있는 거를 대출 다 끼고 사서 월세로 매꾸면서 일단 지금 뽕튀기 몇 개 기다리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거를 세금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로 대출받아서 장사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출은 일단 사업용으로 다 많이 꺼 있어요. (M1)

그런데 이게 금리가 되게 지금 인상됐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 거는 고정 금리니까, 이걸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대출을 가지고 나머지, 요새 예금 적금 다 금리 올랐고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좀 더 이득을 보려고 그런 상황이고,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구요. (M3)

3) 향후 목표

무주택 청년의 향후 자산 목표는 모두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다. 우선, 미혼청년에게 집은 안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자, 한발 더 나아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혹은 확장된 삶의 기회를 의미하였다. 그러기에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등 현재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이는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경기도, 인천 등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구매처로 고려하였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주거형태는 취업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혼 정규직 청년은 아파트 구매를 선호하는 데

반해, 미혼 비정규직 청년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도 고려의 대상이었고,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세 마련이 가능한 금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시들 거기 안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사는 게 제 지금 목적이고 지금 최고의 목적 이거든요. 거기에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값어치 자체도 다들 선호하는, 사람들이 선호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대체로 시장 영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름세가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가기 위한 게 최종적인 지금 현장 상태에서 목표이고. (S6)

저는 사실 굳이 꼭 아파트여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주거만 생각 하면 사실 빌라가 훨씬 쾌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빌라의 작은 평수라도 방 3개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하고 싶고요. 지역은 역이 가까운 의정부나 남양주나 하남도 요즘 괜찮던데, 그런 쪽으로, 서울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S11)

기혼청년들은 주택을 갈아타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향후 자산 목표이자 꿈이었다. 즉, 상가 점포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조기 은퇴 혹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아니면 직장 근처의 더 나은 주거지로 옮김으로써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건물주 되는 게 큰 목표이죠. 크게 어려움이 없이 백도 없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산 목표라고 하면 1,200억대 목표로 하고 있어요. (M1)

저는 임대업자가 되고 싶고요. 일단 편하고 싶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뭔가 보증된 그런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제일 꿈이어서, 일단 집도 2채가 목표인 거고, 나머지는 건물주까지는 아니어도 상가임대 상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M4)

다행히도 남편이 안전 자산 부동산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이를 케어 못 하는 게,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야근이 있고 하면 케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랑 떨어져서 지내는데,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위치로 직장 근처로 목표이고, 더 빨리 은퇴해서 아이와 좀 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목표이거든요. (M3)

나.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청년은 금융자산을 또 다른 부의 기회이자 마지막 남은 계층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인식하였다. 대학 서열에 따라 혹은 첫 직장의 사회적 지위 및 평판에 따라,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기회가 어느 정도 결정지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한 수익 등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충분히 메우고 심지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금융자산 중 주식을 코인 등 다른 금융자산보다 안전하게 여기고 신뢰하였다.

처음에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학교 같은 과 졸업했는데 연봉 두 배 차이 나고 이러니까, 차이가 꽤 나는데 생각했는데, 세부 받는 거를 따져 보면 연봉 두 배 차이 정도 아니다 싶었고, 연봉 두 배 차이 나도 결국에는 투자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게임 아닐까. 지금 세대들은 근로소득의 비중보다는 그거를 충분히 투자로 따라 잡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오히려 그거 때문에 좀 격차가 된다고 균등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S7)

급여 차이가 없지는 않았을 건데, (저랑) 크게 차이 안 나는 친구랑도 지금 많이 벌어진 거 보면 투자 방식이나 경제나 재테크 이쪽에 대한 지식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줘도 안 따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못 만나요. 안 타까웠는데 더 못 만나요. 하라고 했을 때 안 하고 뒤에 가서 차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다 못 가서, 그래서 급여보다는 재테크 방식에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M1)

그렇기에 코로나19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부는 재테크 열풍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즉, 주식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곧 경제 전반에 대한 청년의 높은 관심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청년이 예·적금이 아닌 금융자산을 선호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금융자산의 투자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열풍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였다.

저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 이런 것도 좋은, 청년들이 그런 걸 하는 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제에 관심이 그만큼 있고 ... 나스닥이나 그런 S&P 500이나 그런 데다가 매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랬으면. 빚내서 하지 말고 여윌돈으로 하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S1)

솔직히 과하다고 봐요, 저는. 돈이라는 게 누구든지 쉽게 벌 수 있는 거였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그게 너무 뭐랄까, 어차피 버는 사람은 거의 따로 있고 잃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같은 느낌. 일반적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솔직히 돈을 그런 데서 얻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S4)

그렇지만 재테크 열풍 기저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청년들의 실질임금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이를 보완할 수단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언론이 잦은 보도로 청년들이 위기의식을 갖도록 조장한 것 또한 이유라고 보았다. 부족한 경제교육 역시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고, 로봇,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곧 미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미래 소득감소를 금융자산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였다.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회사원들, 웬만한 직장인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버는 근로소득으로 아파트를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열풍이 불고 그래서 저도 그게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S1)

이거 너무 뉴스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이거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거 같은 느낌을 사실 받기는 했었어요. 이게 뭔가 새롭게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나 빼고 다 하는 분위기 같은 거예요. 뉴스에서는 너무 언론에서 하니까. (S7)

그게 휩쓸리는 이유는,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다들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용감해요. 아는 것도 없는데 막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용감해요. (M1)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X에서 알바도 해봤고, 여러 군데서 알바도 많이 해봤는데, 조금 크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을 계속 줄이고 그거를 자동화 시켜 나가고 로봇 그리고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도 로봇을 일자리를 대체해 나간다는 게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체감으로 확 와 닿지가 않는데 언젠가는 단순한 알바 같은 일자리들은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위기감 같은 게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로만으로는 조금 먹고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S9)

청년 다수에게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즉, 청년들이 목표하는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번은 거쳐 가야 하는 과정인 셈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 모두, 금융자산 중 주식을 코인 등 다른 금융자산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 점이다. 미혼청년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금융자산, 특히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경우가 많은 데 반해, 기혼청년들 모두 코로나19 이전부터 금융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 주식시장 투자 경험을 통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언급하면서, 유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경우, 결혼 전 혹은 결혼생활 초기까지는 주식 투자 비중이 컸지만, 결혼 후에는 점차 비중을 줄였다.

저도 2년 전에 한창 주식 붐이 있어서 친구들 단독방에 엄청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아무것도 전혀 몰랐어요. 편드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봤고, 그냥 저금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뭐 사라고 하면 뭐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그걸 때 사고 치킨 값 정도 벌면 그냥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만 해서. (M11)

애초에 투자한 금액 자체가 제가 적어서 덜 했겠지만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도 더 늘릴 생각이 딱히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면서 저랑은 맞지 않는 거 같더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팔아야 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판 것만 제 수익으로 생각하고 안 팔고 떨어진 거는 나중에 오르면 되겠지, 희망 고문하고 있는 자신이 싫더라고요. (S6)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아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아내가 작년에 일을 그만뒀가지고, 저 혼자 수입원이고 60에서 70% 정도는 저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비랑 가끔씩 나오는 주식 청약 이런 거 쪽으로 안전한 자산 쪽으로 불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도 장난치는 정도 200만 원 수준으로 해 봤는데 좀 소질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 이후부터는 안전 자산 쪽으로 저금하고 있습니다. (M6)

코인은 다소 주식에 비해서는 최근에 생기는 자산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주식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코인은 조금 위험하게 느껴져요. (S9)

그러나 실업·취업준비생 집단(A1)은 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었고, 향후 계획도 없었다. 이들은 본인의 현재 처한 상황보다는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금융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재화하는 듯 보였다.

제 친구 친오빠가 코인을 되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친오빠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잠도 안 자고 핸드폰만 뚫어다 보고 있고, 사람이 폐인이라고, 너무 막 욕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별로다 싶었어요. (S3)

다.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험과 문제점

청년들은 뉴스 등의 언론 혹은 지인 및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 다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있었다. 일부는 해당 사업에 만족하였다.

희망 적금 들고 있거든요. ... 내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실은 제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적는데 받는 거는 많았으니까 그거는 만족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적금 같은 경우는 들기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었으니까 만족을 하고 비과세 혜택도 너무 좋고. (S5)

그렇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특정 소득계층에 있는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이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일부 청년만 특정 사업 혜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오히려 청년의 근로동기를 저해하고 청년세대 내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제도를 봤는데 거의 차상위 계층 이런 거를 충족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중산층도 진짜 입에 풀칠만 할 뿐이지 돈을 그렇게 많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넓게 해서 모든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S1)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왕창 내는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만 챙겨주는 거는 여기서 끌어서 여기를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일을 하거나 그 근로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을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

나 생각이 듭니다. (S7)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취약계층만 주고,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려면 그냥 다 한꺼번에 줘서 여기를 통해가지고 내가 받은 그걸 갖다가 자영업자라든지 내가 쓸 거 쓰면서 해야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성화되게끔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살 수 있는 것들 쓰고 그렇게 해야 정말 정 통해서도 계속 되게 많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야? 취약계층만 준다, 이런 것들은 결국 편 가르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M2)

둘째, 가입연도에 따라 최종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것도 불만스러운 점이었다. 셋째, 현재 청년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약 1년 7개월로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22.07.19.), 현재 정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정책 이용자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지 몰라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사업마다 요구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각기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여섯째, 타 정책과 달리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및 아동과 관련된 정책 지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년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채공 같은 경우에는 ... 나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전 해에 가입한 제 친구보다 400만 원이나 적게 받고. 그 전에 들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를 받는다는 걸 알고 나도 당연히 해야지 하고 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책이 바뀌면서 돈이 줄어드니까 좀 아쉽죠. (S8)

내채공 하고 나면 청년 재직자 내채공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기간이 5년 이거든요. 사실 이 회사에 5년 동안 재직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저거를 5년을 가

입한 다음에 들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쌓여진 돈에서 제 돈은 다 주지만 지원받기로 한 금액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저걸로 전환하는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아쉬워요. (S5)

어떤 지자체 어디서는 복지부에서도 주관하고 어떤 거에서는 또 중기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해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일원화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M2)

일단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게 대출 관련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만 34세까지를 대출 관련해서 보통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 이번 대출받을 때 만 34세로서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 34세를 지난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못 모으고, 그 게 조금 안타까운 거 같고. 그리고 LH나 SH를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는 39세인가 38세까지 청년으로 쳐주더라고요. (S11)

정책적으로 저는 아이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을. 그래서 청년 관련 혜택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 잠깐 받았는데 또 이직하면서 어차피 혜택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없는 건 아는데 그걸 또 막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제가 신청할 때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곳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는 못 해 준다 이래서 세무서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너무 많이 찾아봐야 돼요. (M3)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이 사용자에게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실제로 한 청년은 회사에서 입력한 퇴직 사유와 본인의 실제 퇴직 사유가 달라서 기대한 수령액을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 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입 당시부터, 현 직장의 사용자가 사업자부담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하면서, 본인이 사업자부담금까지 내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받았다. 최근에는 타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현 직장에서 향후 만기수령액을 받을 때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부담금을 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직을 접기도 하였다.

저는 결혼 전에 받았는데 그 회사랑 안좋게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다 이력서를 미리 주고 입사를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뒷사람한테 제가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습 종료를 하자는데 퇴사 사유를 보니까 제 탓인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3개월만 하고 종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어차피 퇴사 사유가 누구한테,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나 챙겨주느냐, 이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저는 못 받고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종료된 케이스라서 안 좋았고.

지금 남편이 적금 붓고 있어요. 5년짜리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걸로다가 약간 빚미를 걸어서 처음에 남편이 그거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거 꼭 해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가 결국에는 회사 비용까지 납부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었어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갔고 회사에서 결국에는 지금은 납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이것도 납부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사람을 잡을 때, 원래 너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절세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관두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모아둔 그 돈이 저희의 귀책 사유가 되어서 못 받으니까,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또 일을 못 그만 두는 거예요. (M3)

한편, 해당 사업에 신청하거나 가입한 적이 전혀 없는 소수의 청년은, 청년자산형성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사업 종료 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목돈이라고 볼릴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해당 사업에 가입하는 것 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만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이 잦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오히려 가입을 막는다고 하였다.

혜택 받으시지만 불입하는 금액의 한계가 있고 엄청나게 목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작은 돈이라도 모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볼모로 잡히면 더럽고 치사한 게 많아서, 일관되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인생 계획에 어렵고. (M1)

사실 예를 들어서 첫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 회사로 2년, 3년을 다닐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 지금

신입사원들이나 저희 회사에 보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고 흔히 말하면 커리어패스 때 문이기도 하고. (M5)

라. 기타 정책 수요

청년들은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보완 및 병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1) 경제(금융)교육 제공

공통적으로 청년들은 경제교육이 공교육 혹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 관련 지식이 알고 이론 중심이라, 실제 삶과 분리된 교육이라고 회상하였다. 그렇기에 현재 청년들은 경제관념이 약하고, 이로 인해 사기 등에 노출될 여지가 있으며, 심지어 금융문맹으로 전락한다고도 보았다. 그렇기에 공공영역에서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청년이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숙지하도록 돕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교육에서부터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이런 거를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집을 살 거 아니에요. ... 사기 당하고 전세 사기 당하고 그런 걸 보면, 저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거 보면 10대 때부터 그런 교육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S1)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금이란 적금 차이를 모른다고 농담 같은데, 진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예금이 뭐지 적금이 뭐지,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면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가 낮아도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똑같은 금액 가지고 적금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는 거 보면 아무래도 금융 교

육이 확실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S5)

저는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공공에서 해 주면 더더욱 좋고요. 그거를 알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천지 차이 같다고, 지금 매우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 관련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6)

전반적으로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랑 투자, 두 가지는 정부에서 신경 써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S9)

2) 현실성 있는 대출정책 마련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미혼청년과 무주택 기혼청년들은 현실성 있는 대출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무리 추첨을 통해 공공전세 주택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한도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수도권 맞벌이 청년가구의 소득을 고려할 때,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2021년부터 부부합산 소득기준 9천만 원 이하이다(금융위원회, 2021.05.31.)¹⁴⁾ 그리고 대출정책이 보통 정규직을 가진 이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 외 직종인 이들은 높은 문턱을 체험하였다.

요즘에 공공 전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순위 상관없이 3인 이상 가구한테 작년부터 하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올라왔어요. 22일부터 신청인데 그거 하려고 봤는데 일단 집들이 많이 없고, 있어도 시세의 80%에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2억 6천, 2억 8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은 전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게 또 앞이 막히더라고요, 그 대출 앞에서. (S11)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크고, 특히 대출이든지 그런 것도, 만

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48>

약에 대출도 서민 실수요 이런 것도 소득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대출 기준이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건 말이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조금 너무 비현실적이라 남편 일부러 퇴사시키고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소득 기준에 맞추려고. (M4)

제가 봤을 때 너무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4대 보험 들어가 있고 일반 직장 다니고 나인투스 일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거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을 때 대출을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도 많고 자영업 개인 사업자도 많고 한데, 그게 정책 같은 게 기초가 너무 일반 평범한 직장들,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쪽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S10)

그러나 최근 발표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¹⁵⁾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청년들은 투자 결정은 온전히 개인의 판단이고 묶이기 때문에, 책임도 빚도 본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가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청년들이 빚을 점진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연결 혹은 마음건강 치유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는 사회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 들어간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자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정부 돈으로 몰아서 갚아주거나 탕감을 해 주게 되면, 이게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내가 다음번에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손실이 생

15)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청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국가가 신용이 낮은 청년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38> 참고 바람.

저도 그때 또 매꿔주겠지, 이게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끝는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S6)

어쨌든 본인인, 판단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빛을 탐감해 주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서 지금 삶의 의지가 없고 막말로 한강으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빛은 빛대로 두되 그분들이 뭔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약간 오히려 정신적인 치유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됐으면. (M8)

3)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편

미혼청년 중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입주한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주변의 인프라 부족, 임대주택 공급 총량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 관련 임대주택은 주로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 집중되다 보니,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등의 기타 가구유형에 속한 이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금 친구 사는 지역도 보고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거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예를 들면 교통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지하철역도 없고 지하철역이 너무 멀고 그러는데 이쪽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금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곳도 지하철역이 있기는 한데 너무 신도시 위주로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S10)

보통 청년으로 하려 그래도 넣으려 그러면 다 보통 1인 가구를 위한 집들밖에 대부분 없어요. ... 그러면 저희같이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 2개짜리 가지고 엄마가 한 방 쓰고, 저희 둘이 쓰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양한 가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평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11)

한편, 무자녀 기혼청년들은 신혼부부 특공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녀의 유무가 신혼부부 특공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반청약을 시도하거나, 직접 주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대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일단 신혼부부 특공 말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있는데, 그거는 평수가 너무 작아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생애 최초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랑 일반이랑 같이 했는데 생애 최초는 안 되고 일반이 오히려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면 순위가 너무 떨어져서. (M6)

제 동생은 일찍 결혼한 케이스라 혼인신고도 또 일찍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나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아파트 사더라고요. 이게 아기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대요,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애가 있냐고. (M7)

4)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 지원

미혼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제도 경험자들은 일부 분야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이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교육 및 학원 기관의 질이 우수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서울 외의 비수도권 지역에는 관련 학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재하여,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닌 경우도 있었다.

국비 지원으로 개발자로 취직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8개월 교육받고 그 교육이 끝나서 알선해 주는 업체 취직해서 지금도 회

사에 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랑 같은 전공이에요. 저는 문과 전공인데 개발자로 전향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친구가 국비 지원 개발 접하면서 실제로 직무까지 이어지는 거 보고, 저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부담도 덜 하니까 괜찮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굉장히 일부 직무에만 한정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이라는 게 개발이라든지 공대 쪽 일이라든지 현장 나가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위주가 대부분이더라고요. (S6)

학원비를 대주는 거였어요. 학원비를 대줘서 거기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 일을 아예 모르다가 배우는 거니까 그냥 배웠거든요. 나중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다. 이거는 진짜 1년만 내가 공부해도 이렇게 가르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S11)

3. 소결

이번 절에서는 FGI 면담조사를 통해, 청년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 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형성 방식,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험과 문제점, 그리고 기타 정책 수요와 개선방안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종합적인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 FGI 주요 결과

		사회 미진입기	사회진입 및 정착(안정)기		가족 형성기	
		A1 실업·취준생	A2 미혼 정규직	A3 미혼 비정규직	B1 기혼 유자녀	B2 기혼 무자녀
자산 현황		-	1억 원 미만		1억 원대 이상	
부채 현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성 대출 등	
		학자금 대출		중고차 대출 주택청약 학자금 대출 등		
자산 형성·증식 방법		-	예금·적금		예금·적금, 청약통장, 채권, 펀드, 주식, 코인, 외화 투자, 부업(알바), 부동산 등	
			주식, 코인		-	[무주택자] 법적 혼인신고 연기
			청약통장 채권, 펀드, 외화 투자, 부동산 등	파킹 통장, 부업(알바)	-	[무주택 기혼여성] 출산 연기
향후 목표		자가 소유			[非자기]	
					내 집 마련하기, (상급지 갈아타기, 2번째 주택 구매 등)	
		-	보증금, 전세자금 마련		[자기]	
					상급지 갈아타기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인 식	예· 적금	종잣돈 형성	소비와 지출 통제수단	종잣돈 형성	자녀의 자산형성	종잣돈 형성
					소비와 지출 통제 수단	
	비상금(비상시 급전 용통)					
주식	무관심, 혹은 부정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수단			종잣돈 형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수단	
기존 사업		사업의 세부기준 조정, 즉 대상층 확대, 소득기준 완화, 근속연수의 유연화, 복잡한 절차 등을 문제점을 개선				
기타 정책 수요		이행기 청년 지원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편	
				임대주택 제도 개선		
		-	현실성 있는 대출정책 마련		-	
		경제(금융) 교육 제공				

자료: 필자 작성.

먼저, 미혼청년에게 직업적 이행은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여부, 근로형태별로 삶의 향배가 다르고, 목표하는 경제적 기대치가 서로 달랐다. 실업·취업준비생은 자산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구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예금, 적금을 비롯하여 외화 투자, 코인, 채권, 주식, 펀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하였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비해 원금이 보전되는, 즉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 미혼 정규직 청년과 달리 부업(알바)에 뛰어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비록 근로형태별로 자산 현황과 형성 및 증식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 등 금융자산 등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통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집은 안정적인 삶 그리고 독립의 표본이었다.

다음으로, 기혼청년은 주택 보유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자산 현황과 형성 및 축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기혼청년의 자산 규모는 미혼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 다수는 미혼청년과 달리 부동산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부업(알바)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기혼청년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결혼 초기까지 활발히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된 시점부터는 적금, 펀드,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화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자녀이면서 무주택자는 법적 혼인신고를 연기함으로써, 주택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무자녀 및 무주택 기혼여성은 가족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기혼청년 중 일부는 자녀를 위한 자산형성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향후 계획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랐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 등의 부동산 보유를 희망하였다.

부채 종류의 경우, 미혼청년과 기혼청년은 주로 주택 관련 대출이었다. 미혼청년 중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부채 종류는 매우 다양하였다. 미혼청년은 대체로 정부가 청년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였기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 기혼청년의 부채는 미혼청년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종류도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금과 적금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다소 복잡적이라는 것이다. 예금과 적금은 미혼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종잣돈 형성 수단이었지만, 미혼 정규직 청년들은 예금과 적금을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미혼 정규직 청년에게 예금과 적금은 본인의 미약한 경제적 수준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투자 방식과 그 수익으로 인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즉 삶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미혼청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지만, 실업·취준생 집단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혼청년은 금융자산을 자산을 형성 및 증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보았다. 물론, 일부 청년은 금융자산에 대해 다소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자산형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식, 코인 등의 금융자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청년이 요구하는 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청년자산형성제도 사업에서 세부기준, 즉 대상층 확대, 소득기준 완화, 근속연수의 유연화, 절차의 단순화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경제(금융)교육 제공, 현실성 있는 대출정책 마련,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특

공 제도 개편, 이행기 청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관 정책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되어야, 청년자산형성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번 FGI 면담조사의 한계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청년의 목소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이들이 아닌, 현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앓고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청년의 부채 문제가 사회적 뇌관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채상환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담아낸다면, 향후 정책 설계에 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제1절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해서, 청년 자산 및 부채 실태와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자산의 개념과 특징,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9~39세 청년가구주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주요 키워드의 검색량과 전국일간지의 관련 기사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FGI 심층면담을 통해, 19~39세 청년들을 5그룹, 총 20명을 모집하여,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복지욕구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산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것, 자산 및 부채 실태를 분석한 것, 그리고 자산을 둘러싼 인식과 경험을 살펴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외 제도로는 싱가포르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현재는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복지부, 금융위, 기재부, 고용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운영 중이다. 지자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내 통장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및 만기 수령금 등의 특징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한계점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보유 실태와 부채 보유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1절에서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및 순자산의 규모를 분석하고, 자산 대비 순자산 비율, 실물자산 비중, 소득 대비 자산 규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록 전체 가구의 자산 규모 확대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자녀가구의 자산 규모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1인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규모와 그 변화폭이 뚜렷하여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 규모가 크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다. 결과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실물자산 비중 역시,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주 가구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가구주의 가구가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년가구주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커졌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청년가구주 가구의 자산 규모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잔액, 부채의 유형 및 용도 그리고 부채상환 위험 상태를 분석하였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1년 기준으로 73.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비(DTI) 300% 이상은 21.75%,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 30% 이상은 25.78%, 자산 대비 부채비(DTA) 300% 이상은 16.72%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부채상환 위험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가구주 가구는 4.77%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 관련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부채의 양면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다는 것은 곧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채는 한 개인의 왕성한 경제적 활동과 여유를 기반으로 하여 창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통 빚도 많은 경향이 있는 점을 유의해서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자금 수요의 미스매치를 고려하면, 소득이 자금수요보다 낮으며, 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기에 차입을 늘리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 부채의 증가는 청년의 재무결정 합리성 제고 및 자금수요에 대한 금융 서비스 공급 확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자산의 양상 및 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인터넷에서 ‘청년’, ‘주식’, ‘예·적금’ 등 이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었는지, 그리고 전국일간지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얼마나 언급되었는지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코인과 주식 검색량과 관련 신문기사는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19~39세의 청년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험과 문제점, 그리고 기타 정책 수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산 현황은 혼인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미혼청년 내에서는 경제활동 유무 및 근로형태별로 자산 격차가 있고, 기혼청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정규직 청년의 투자 방식은 매우 다양한 반면, 미혼 비정규직 청년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기혼청년은 일정 정도 자산을 형성한 후에는, 주식 등 리스크가 있는 투자방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적금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였다. 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자산을 둘러싼 인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실업·취준생과 미혼 비정규직 청년은 예·적금을 종잣돈 형성의 수단으로 보았지만, 미혼 정규직 청년은 소비와 지출 통제수단으로 보았다. 주식에 대해서는 실업·취준생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그 외 미혼청년 집단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보았다. 기혼 집단은 예·적금을 소비와 지출 통제수단이자 비상금 자원으로 인식하였고, 자녀가 있는 집단은 자녀를 위한 자산형성의 수단으로도 보았다.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종잣돈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시기에 당연히 거쳐야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향후 자산 목표는 자가 소유의 집을 구매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고, 대부분 경험이 있었다. 현행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의 단순화, 근속연수의 유연화, 소득기준 완화, 대상층 확대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3장에서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는 청년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청년 개인의 현황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

구 결과를 전체 청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제4장 2절에서 살펴본 FGI 심층면담은 19~39세의 청년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만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전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 연구가 진행된 시점인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미국 통화정책(monetary policy)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따라서 FGI 심층면담조사 결과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립준비청년, 미혼 한부모 청년, 장애인 청년, 이주배경 청년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이들 모두가 취약한 집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지만, 이들의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그리고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일반 청년과는 다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이 요구될 수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점

첫 번째, 청년자산형성지원정책 사업의 세부기준을 조정 및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근속기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청년의 첫 직장 근속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22. 07.19.), 현재는 한 직장에서 2년, 혹은 5년 정도 근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의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근속기간 유연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

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관련 사업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취업준비생 집단의 경우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이에 따라, 불안정 고용 혹은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이들도 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기준을 완화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금수저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장병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법정 청년 연령에 속하는 부사관, 장교 등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 인생주기별 자산형성의 지원 사다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간에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업 간에 연동 및 연계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상, 청년들은 학업, 이사, 취업, 이직 등의 이유로 인해, 빈번한 이사 및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업은 보통 타 행정구역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중도 탈락된다. 특히, 앞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청년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갑자기 오른 전세금, 보증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전출하는 경우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성이 큰 집단이 비자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간 관련 사업을 연동 및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복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 사업이나 국가사업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만기 수령금은 실물자산 등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

서 청년이 현실성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정 집단에 한해 중복수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부 등 다양한 기관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간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하여, 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점검함으로써, 우수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주택구입특화 장기 매칭 청년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3장의 분석 결과, 청년의 부채 용도는 주거 마련이었고,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제4장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청년의 최종 자산 목표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나, 기타 부동산 매매 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주택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통장사업 목적을 주택 구입으로 단순하게 설정하고, 국가 보조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 개인에게는 근로 유지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실물자산이 개인에게 남게 되므로 정책 효과성, 체감도 그리고 만족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루트는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다른 통장사업과 달리, 청년이 비록 이직 등을 하더라도, 통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직 시, 혹은 취업 준비 시에는 납입을 잠시 유예해주는 등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현존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중복 지원을 할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가 있다. 즉, 지역 여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만, 청년 외의 중장년 집단 등에서도 주거 소유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생애 한 번 청년 누구나 재무상담사로부터 재무 설계와 채무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생활을 한 경험과 경제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한영섭, 2014). 또한, 청년에게 채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 청년에게 재무 종합상담, 소득지출 관리, 금융 투자 상품 선택, 목돈 만들기 등과 같은 방법을 상담해준다(기성훈, 2021.12.06.). 이러한 방법은 청년의 관심 및 수요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담은 주로 민간 지주회사의 VIP 고객 혹은 이들의 자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금융기관의 유료 재무 상담의 성격으로 제공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금융 관련 기관들이 청년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상업성 보험 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서 특정 소수만이 아닌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상담서비스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청년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개별상담을 제공하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저축과 소비를 조절하고, 금융상품 선택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청년 자산형성 관련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만기수령액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관리 및 이용자의 욕구와 미스매치 등의 이유로, 사례관리는 점차 축소 혹은 폐지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석희정 외, 2021). 그렇기에 현재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넘어,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연계하여 검토하는 추가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체계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의 변화를 고려해볼지 한데, 현재로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지역자활센터가 그 역할에 적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센터는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사례관리에서 담당기관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맹점인 만큼, 전문인력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청년의 부채 발생 위험성을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¹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시기부터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에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한 바 있다(김미향, 2021.08.07.). 그렇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약 30%는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교육이 있다고 하여도, 60%는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하였다(김제림, 고민서, 2021.10.11.).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교육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전체 성인은 66.8점인데 비해, 청년은 64.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 특히, 청년은 장년에 비해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실적 금융 의사 결정, 장기적인 재무 설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실시해야 하지만, 대학 등에서 재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상담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산 관리, 신용 관리, 자산목표 설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다(OSU.EDU, 2022). 결국 이러한 교육 과정은 한 개인의 현명한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이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곱 번째,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

16)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일컫는다(금융감독원, 2017).

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의 부채는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의 과중한 부채는 청년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기회마저도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만약 청년이 과중한 부채로 인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즉, 필요한 교육이나 커리어 패스를 위한 취업이나 이직 준비 등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혹은 금융회사와 청년 부채자 간의 채무상환 일정을 조정하여 채무 문제 해결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청년 부채 문제는 주택 및 고용 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로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관련 혜택을 청년층에게 폭넓게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책 등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부채 혹은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회생, 신용회복 등) 관련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청년들은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반면, 부채 혹은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회생,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관련 제도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자산형성사업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만 초점을 두어,

부채 관리 및 신용회복과 관련된 사업의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미흡해서 기관 간의 연계 지원이 부족한 것도 들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센터와 유관기관 간의 연계와 통합 그리고 종합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 생애 관점에서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이 현재 처한 상황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누적된 경험의 결과이므로, 미래 청년이 될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들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청년 문제를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의 연계 방안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극 논의 및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삶의 불안정성은,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정책과 중장년정책, 노인복지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 등과의 연계 및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2022). 빠른인터넷상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4061544257881000&pageIndex=1&gubun=에서 2022.10.24. 인출.
-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소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에서> 2022.06.02.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 에서 2020.06.06.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548> 에서 2022.06.06. 인출.
- 구글트렌드. (2020.01.01.~2022.08.02.). 구글 주요 키워드 검색량.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0-01-01%2022-08-02&geo=KR&q=%EC%A3%BC%EC%8B%9D,%EC%98%88%EA%B8%88,%EC%A0%81%EA%B8%88,%EC%BD%94%EC%9D%B8](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0-01-01%202022-08-02&geo=KR&q=%EC%A3%BC%EC%8B%9D,%EC%98%88%EA%B8%88,%EC%A0%81%EA%B8%88,%EC%BD%94%EC%9D%B8)에서 2022.08.02. 인출.
- 국방부. (2022). 장병내일 준비적금. https://www.mnd.go.kr/mbshome/mbbs/mnd/subview.jsp?id=mnd_011302060000에서 2022.06.06. 인출.
- 금융감독원. (2017.01.23).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2105>에서 2022.12.01. 인출.
- 금융감독원. (2022a). 서민금융지원 - 햇살론 youth.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702.jsp에서> 2022.06.06. 인출.
- 금융위원회. (2021.12.21.). 금융교육협의회, 「2022 금융교육 강화방안」 의결.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41에서> 2022.08.01. 인출.

- 금융위원회. (2022.08.30.).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8412?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에서 2022.10.25. 인출.
- 기성훈. (2021.12.06.). “서울 사는 청년 좋겠네”...재테크 비법도 무료로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614110022470>에서 2022.11.30. 인출.
-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현안분석, 제216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607>에서 2022.11.30. 인출.
-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성윤, 이준영, 이향은, 한다혜, 이혜원, 추예린. (2022). 트렌드 코리아 2023 -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서울: 미래의 창.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향. (2021.08.07.). 돈 관리, 공교육으로 접근할 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6786.html>에서 2022.08.01. 인출.
- 김민재. (2022.08.26.). 투기하다 생긴 빚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부채를 탕감하라. 사회주의자. <http://socialist.kr/cancel-youth-debt/>에서 2022.12.01. 인출.
-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2020).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김제림, 고민서. (2021.10.11.). 초등학생도 ‘파상’ ‘떡락’ 쓰는데...금융이해도 조사했더니[교사 설문조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

- ociety/10055640 에서 2022.08.01. 인출
- 김태은, 양세정. (2018). 청년층의 부채상환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9(6), 105-133.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연. (2014). 쓰기 과정에서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동적 상호작용.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20678/1/000000018149.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3.03.).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534> 에서 2022.10.25. 인출.
- 박수민. (2022).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월호.
- 박정민, 박호준, 오욱찬. (2017).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8(4), 33-57.
- 박충렬.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200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assembly.go.kr/portal/preview/docsPreview/previewDocs.do?atchFileId=0eae65f552af4cfd9cef1a16985d202b&fileSn=1&viewType=CONTBODY>에서 2022.10.25. 인출.
- 박희중. (2022.01.25.). ‘벼락거지’된 한국청년, 취업보다 가상자산 투자에 더 관심 많아.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125500091> 에서 2022.10.27. 인출.
- 변금선. (2020). 청년기 노동이행의 변화 : 탈표준화, 계층화, 성별 격차.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 7(0), 1-34.
- 보건복지부. (2022). 복지 - 자립지원 - 자산형성지원,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204&PAGE=4&topTitle=에서 2022.06.06. 인출.
- 빅카인즈. (2020.01.01.~2022.08.02.). ‘적금 또는 예금’과 ‘청년’에 관한 전국

- 일간지 기사.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에서 2022.08.03. 인출.
- 빅카인즈. (2020.01.01.~2022.08.02.). ‘주식’과 ‘청년’에 관한 전국 일간지 기사.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에서 2022.08.03. 인출.
- 서민금융진흥원. (2022). 서민금융 한눈에 - 생계자금.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menuCode=01313&menuCategory=00160> 에서 2022.06.06. 인출.
- 서울시복지재단. (202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achieveBank.lp>에서 2022.06.06. 인출.
- 서울특별시. (2022). 지역사회복지 - 저소득층 자립지원.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02>에서 2022.10.25. 인출.
- 서종녀. (2016). 서울시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지원정책 현황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50.
- 서종녀. (2019). 서울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의미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5-99.
- 석희정, 원도연, 이효선, 박성진. (2021).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 -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시: 경기복지재단.
- 송아영. (2021.06.17.). 싱가포르 16~30세 교육비는 ‘PSEA’, 다음 EBS. <https://v.daum.net/v/20210617173559225>에서 2022.10.24. 인출.
- 신승근. (2021).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안 모색. 서울: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portal/signl/search/search.do>에서 2022.10.24. 인출.
- 신용회복위원회. (2022). 특별지원프로그램. <https://m.ccrs.or.kr/renewal/debt/program.do>에서 2022.11.30. 인출.
- 신한은행. (2021).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https://www.shinhan.co>

- m/hpe/index.jsp#902301000000에서 2022.10.27. 인출.
- 오호영. (2017). 캥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KLI 패널 워킹페이퍼, 7(7), 1-26.
- 우리은행. (202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HSS0042&cc=c011839:c009166> 에서 2022.12.12. 인출
- 유근식. (2021).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2&pageSize=5&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611&idx=7611에서 2022.11.30. 인출.
- 이동준, 맹성준, 강준혁.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127-160.
- 이동준, 한창근.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9), 771-789.
- 이용우. (2022.02.07.). “취업도 어려운데”...저소득층 대학생 빚더미에 오르는 중,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2/02/07/finance/bank/20220207100958505.html>에서 2022.11.30. 인출.
- 이용호, 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3), 227-253.
-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아, 한창근. (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75-100.

- 이주미, 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월호, 8-20.
- 장동호. (2021).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책효과: 광주광역시 청년13(일+삶)통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3), 153-179.
- 전경숙. (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13(1), 117-146.
- 전병유, 정준호. (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105-134.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전승훈, 조덕호. (2016). 농가의 자산·부채 구조 및 부채위험 변화 분석: 비농가와 비교. 지역사회연구, 24(2), 125-142.
- 정해식, 김태완, 김현경, 정은희, 오욱찬, 이원진, 고혜진, 백혜연, 우선희. (202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효과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규형, 강소량, 한창근, 강시온. (2019).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조성호,菅 桂太(스가 케이타), 渡邊 雄一(와타나베 유이치), 四方 理人(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소기업벤처부. (2021.12.2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보도자료.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0760>에서 2022.10.24. 인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83M0.do>에서 2022.10.24. 인출.
- 채선희. (2022.11.03.). “영끌해서 마련한 집, 후회합니다”...빈곤층 전락하는 2030 [대한민국 빛 리포트①]. 한경금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3154876>에서 2022.12.01. 인출

- 최상미, 김아래미, 박성준, 유송이. (2018).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기초연구. 서울: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 최상미, 조자영. (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현수, 오미애, 한창근, 최준영, 김성아. (2013).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성과 및 정책과제: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4차(2013). 서울: 중앙자활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 한창근, 서광국, 오미애, 김예슬, 전지수. (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2012~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다운로드. <http://mdis.kostat.go.kr/>에서 2022.06.09. 인출.
- 통계청 (2022a)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C:/Users/kihasa/Downloads/2022%EB%85%84%20%EA%B0%80%EA%B3%84%EA%B8%88%EC%9C%B5%EB%B3%B5%EC%A7%80%EC%A1%B0%EC%82%AC%20%EA%B2%B0%EA%B3%BC.pdf 에서 2022.12.12. 인출
- 통계청. (2022b). 통계 용어 및 지표 - 사전식 보기 - 고정자산.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2&keyWord=0&cd=SL3976&sTt=에서 2022.11.30. 인출.
- 통계청. (2022.07.19.).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9347에서 2022.11.30. 인출.
- 하지나. (2022.05.16.). 작년 2030 양극화 심화..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4086632329576&mediaCodeNo=257&OutLnkChk=Y>에서 2022.11.30. 인출.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03.29.).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

- Id=10063667&menuNo=200690에서 2022.10.28. 인출.
- 금융위원회. (2021.05.31.). [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48>에서 2022.12.16. 인출.
- 금융위원회. (2022.07.15.).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 관련 설명. 카드뉴스.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38>에서 2022.12.16. 인출.
- 한국은행. (2020.12.17.).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1804&menuNo=200690>에서 2022.11.30. 인출
- 한영섭. (2014). 청년금융복지상당 모형 개발 및 적용과 효과. 서울: 서울연구원.
- 한창근. (2007).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창근. (2022.09.01.).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 Baacke, D. 1999. Jugend und Jugendkulturen. (개정 3판). Weinheim & München: Juventa Verlag.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2022). Six changes to CPF in 2022. <https://www.cpf.gov.sg/member/infocenter/educational-resources/six-changes-to-cpf-in-2022>에서 2022.09.04. 인출
- Friedline, T. (2014) 'Extending Saving Accounts to Young People: Lessons from Two Decades of Asset Building', *The Asset Perspective - the rise of asset building and its impact on social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lland, O. (1984). La Decouverte: Les Jeunes. Paris: La Decouverte Editions.
- Galland, O. (1991). Sociologie de la jeunesse. Paris: Armand Colin.

- Han, C. K. (2013). A Comparative Study of Asset-based Policy in Asia: Korea, Singapore, and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5(1), 54-67.
- Han, C.K., Grinstein-Weiss, M. and Sherraden, M. (2009). Assets beyond Saving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Social Service Review*, 83(2), 221-244.
- Loke, V. and Sherraden, M. (2019). Building assets from birth: Singapore's polic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9(1), 6-19.
- Modigliani, Franco. (1986).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6(3), 297-313.
- Oliver and Shapiro. (1990). Wealth of a nation: A reassessment of asset inequality in America shows at least one third of households are asset-poor.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2), 129-151.
- OSU.EDU. (2022). STUDENT WELLNESS CENTER. <https://swc.osu.edu/services/financial-coaching>에서 2022.11.30. 인출.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 Sherraden, M. (2014) 'Chapter Thirteen: Asset building research and policy: pathways, progress, and potential of a social innovation', *The Asset Perspective - the rise of asset building and its impact on social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herraden, M. (2015). *Assets and the Poor -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Oxon and New York: Routledge.
- Sherraden, M. (2018). Challenges in Asset Building in Singapore. *Critical Issues in Asset Building in Singapore's Development*.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144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웹페이지

싱가폴 MSF. 베이비보너스(BabyBonus). <https://www.babybonus.msf.gov.sg/Pages/Home.aspx>에서 2022.12.16. 인출.



청년(만 19~39세) 면담의 설계: 대상과 면담 가이드

□ 목적

- 청년의 자산형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 인터뷰 내용 구성

- 도입부에서 면담참여자간 자산/부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에 대해 구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면담자의 배경 이해와 면담자의 긴장을 완화하도록 진행
- 청년의 자산 및 부채 상태 그리고 자산형성 동기와 행태에 대해 파악
- 청년의 금융자산 형성 경험과 변화된 인식을 중심으로 인터뷰의 본론을 구성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요구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성포괄

□ 질문예시

-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파일 2. 질문지_당사자FGI 질문 작성으로 대체.

-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자산(돈, 목돈)/부채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실례가 안된다면, 현재 부채(대출)가 있습니까? 부채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부채를 갚을 예정인가요?
 - 현재 본인의 자산(소득) 수준이 또래에 비해 혹은 전 연령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원하는 만큼의 자산(종자돈, 목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가 마련, 자기개발, 학자금 등의 빚 갚기, 자동차 구매 등)

-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부는 재테크 열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ㄱ) 재테크 열풍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ㄴ) 귀하는 주식, 코인 등을 경험하신 바 있습니까?
 - 재테크 열풍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언론이나 지인의 영향 등등)
 - 만약 투자 경험이 있다면, 설정한 목표는?, 주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접하십니까? / 목표 달성 실패 시, 생각했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생략 가능.
 -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계획했던 일이나 진로를 변경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 본인 소득의 몇 %를 주식, 코인 등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득 대비 몇 %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경기 악화 시에도, 꾸준히 재테크를 통해 자산(목돈, 종자돈)을 마련하실 생각하십니까?
 - 적금, 예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재 소득 대비 몇 %를 저축하고 있나요?, 적금, 예금만으로 원하는 종자돈, 목돈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외,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햇살론 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해당 경험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제도 인식이 저조할 수 있음.
 - 만약 있다면, 어디서 정보를 접하셨나요?,
 - 위의 사업을 경험 혹은 이용하신 적은? 가장 도움이 된 것은?
 -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태도
 -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목돈 만들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sub Q) 받는 혜택이 적더라도 모두에게 지원해야하는지 VS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청년을 지원하는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악화나 위험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개인회생 등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부채가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삶의 다음단계로 이동하는 시기에(예: 학교에서 직장으로, 취업 및 이직 준비,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살기, 결혼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기),

ㄱ) 경제적 자원이 충분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의 지원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었더라면/있었더라면) 생활/자산/부채관련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은가요?"

ㄴ) 이러한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지금보다 목돈(종자돈)을 모으기 수월한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년 후(기혼 청년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갈 때쯤), 본인의 자산(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혹은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터뷰 마무리 질문입니다.

- 피면접자 기본정보와 관련하여 빠진 부분 체크
- 추가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